



[산업] 어게인 2002 월드컵 분위기 띄우는 현대기아차·KT 06



Economy

코스피	2468.38 (0.00)	코스닥	875.04 (0.00)
금리 (미국 3년)	2.22 (0.00)	환율 (원/달러)	1077.20 (+2.00) (13일)

'6·13 지방선거' 여야 희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13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6·13 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시청하며 민주당의 압승을 예측하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린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광역단체장 14곳 석권 지방선거 압승

표심은 '외국' 보수를 심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3선 성공

지난해 5월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1년여만에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예상대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2, 3, 4, 5, L8〉

13일 오후 6시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가 발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구조사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경북과 대구, 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승리한 것으로 예측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경북과 대구 등 영남지역 2곳에서 승리한 것으로 예상됐고, 제주도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원희룡 후보가 당선예측됐다.

국회의원 재보선은 12곳 중 10곳을 민주당이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경북 김천 1곳, 나머지 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오차 범위내 경합 경쟁지역으로 분류됐다.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이끌 지역 일꾼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는 13일 오전 6시 전국 1만4134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돼 순조롭게 진행됐다. 지방선거와 함께 서울 노원병·송파을을 비롯한 전국 12곳에서는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도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016명의 지역 일꾼을 뽑았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대선 이후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율곡로 안국빌딩에 마련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안규백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 선대위 관계자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metroseoul.co.kr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있었다. 특히 미니총선 수준의 국회의원 재보선도 함께 진행되면서 정치적 무게를 더했다. 하지만 선거운동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후보 개인의 사생활 문제에 이어 땅 투기, 공짜 골프, 병

역 문제, 건강 이상설까지 네거티브 소재로 등장하면서 난타전이 벌어지는 등 정책·공약 대결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거 판세는 그동안 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 행진한 데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고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린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TV를 통해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되면서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분석이 선거기간 이어져 왔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사이 보수' 결집 등을 통해 극적 반전을 노렸지만 성공을 거두진 못하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 격전지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서울시장 선거는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성공한 것으로 예측됐다. 선거 막판 각종 논란으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었던 경기도지사 선거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의 막판 추격을 뿌리치고 당선에 성공한 것으로 예측됐다. /최신호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핵제거' 속뜻 담긴 완전한 비핵화 여정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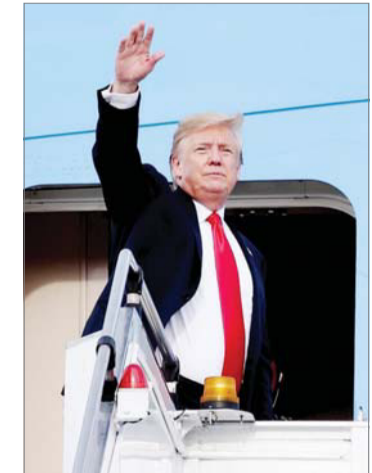
내주 北美 실무회담서 세부내용 논의

북미 정상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에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담기면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북한과 미국은 내주 있을 실무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인 13일 트위터를 통해 "밝은 새 미래를 향해 첫번째 과감한 조치를 취해 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감사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세계와의 약속을 수용한다면 북한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며 "김 위원장의 앞에, 그가 그의 국민을 위해 안보와 번영의 영광스러운 새 시대를 여는 지도자로서 기억될 기회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을 만나고 가는 길에 다시 한번 북한에게 핵을 포기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번 두 정상간 합의문에는 그동안 미국이 비핵화와 관련해 강력하게 주장했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

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 관련 문구는 없었다. 대신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선 미국이 북한에게 상당한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양보한 것이 아니다.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의 체제)보장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변함 없는 의지를 담았다"며 일부의 부정적 평가를 일축했다.

비핵화 검증 문제 등에 대해선 "우리는 앞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해 검증을 하게 될 것이다. (검증엔)미국과 국제기구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비핵화 문제를 놓고 북한과 줄다리기를 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을 역시 정상회담 이후 진행될 실무협상 대표로 내세웠다. 한국, 일본, 중국과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회담 직후 미국 ABC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관련 의지가 다시 한번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2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생각에 그 (김 위원장)는 자신의 나라를 위해 아주 멋진 뭔가를 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핵무기를 제거해야 한다. 여러분은 북

한의 전면적인 비핵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동성명엔 'CVID'를 담지 않았지만 트럼프가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바로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의미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그들의 핵무기를 제거할 예정이다. 그들이 비교적 빨리 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대신 빨리되기를 희망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 기자회견에서 "과학적으로, 기계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그것(비핵화)을 할 것이다. 20%만 진행하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지만 빨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삶의 질 높은, 동북아 평화중심도시 ‘서울’ 만들 것”

박원순 ‘서울 10년 혁명’ 구상은
카드수수료 인하·유급병가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역점
성평등 전담팀 신설 정책 구체화
빠른 시일 내 평양 방문 추진도

‘어시박’(어차피 시장은 박원순). 예상대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울 시장으로 최종 당선됐다. 3선에 성공한 박 시장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오는 2022년 6월까지 10년 8개월간 서울시정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박 시장은 후보시절 때부터 줄곧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강조하며, 앞으로 서울시장으로서 4년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삶의 질이 높아진 서울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해 왔다. 또한 최근 싱가포르에서 성사된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해, ‘동북아평화도시’로서의 서울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시민의 삶 바꾸는 10년 혁명’

박원순 시장은 앞으로의 4년 동안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진 세계적인 도시로 서울을 거듭나게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년 보다 더 큰 서울의 변화를 목표로 한 박 시장은 앞서 선보인 공약에서 ▲사람 중심 ▲문재인 정부 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눈스퀘어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집중유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1의 성공파트너 등을 핵심 기조로 했다.

박 시장은 특히 1000만 서울 인구 중 100만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임대료만큼 부담스러운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폐업자 회생을 돕는 ‘서울형 자영업자실직안전망’ 구축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등을 앞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중앙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30%에 시가 20%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청년 실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연간

1000억원 상당의 기금을 마련, 청년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연이자 0.5%)에 최대 10년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청년을 위한 주택 14만5000호를 공급하고 서울시위원회에도 34세 미만 청년을 15%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박 시장은 중앙정부, 수도권, 동북아 등 국내외로 대기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현재 베이징시와 미세먼지와 관련한 기술, 정보, 인적분야와 관련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성평등 도시’ 서울의 구현을 위해서는 박 시장은 서울시청 여성가족실 내 성평등정책과, 성평등노동정책팀, 젠더폭력예방 부서 등을 신설해 성평등 정책을 구체화하고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동북아평화도시’ 서울, “빠른 시일 내 평양 가겠다”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박원순 시장은 동북아 평화를 견인하고 평양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서울의 입지와 역할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이날 박 시장은 “평화는 서울의 잠재력을 복원시키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동북아 평화중심도시 서울을 본격적

로 준비할 때”라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평양을 방문하겠다”고도 했다. 그가 그려온 ‘서울-평양 포괄적 교류협력 구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될지도 기대를 모은다. 박 시장은 외교나 안보 등 분야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다면, 실제 시민 삶과 관련해서는 서울 대 평양과 같이 도시 대 도시로 풀어야 할 사안도 많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 그는 앞으로 남북 경제교류가 활성화될시 양국 경제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과거 7년 서울시장… 그동안의 성과

그동안 박 시장이 주도해온 지난 6여년 동안 서울시의 채무는 8조원이 감축됐다. 사회복지예산은 두 배 올랐다. ▲2012년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2013년 올빼미 심야버스, 여성안심택배 ▲2014년 리모델링한 세운상가에 청년 스타트업기업 입주,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구축 ▲2015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16년 공공임대주택 13만호 이상 공급 ▲2017년 서울역 일대 고가보행길 연결 ▲2018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만명 돌파 등이 주요한 성과로 꼽힌다.

박 시장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시정업무에 복귀한다. 민선 7기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metroseoul.co.kr



개표 임박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끝난 13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 마련된 성동구개표소(왼쪽)와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 마련된 광진구개표소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PK 보수 붕괴... 경남지사·부산시장 첫 진보 지자체장

‘왕의 남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
‘4수생’ 오거돈 보수 텃밭서 당선

부산·경남(PK) 지역의 철옹성 같던 보수 세력이 무릎을 꿇었다.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잡았다. PK에서 모두 진보 지자체장이 나온 것은 사상 처음이다.

4수생 오거돈 후보가 서병수 현 시장을 멀찌감치 제치고 부산시장으로 당선됐다. 4년 전 간발의 차(1.3%포인트)로 서병수 후보에게 패했던 오거돈 당선자는 무소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름을 달고 나온 이번 선거에서 서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오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서 후보를 앞서나갔다. 해수부 장관 출신인 오 당선자가 부산에 적합한 정무 능력을 갖췄을 것이라 기대가 기반으로 작용했다. 또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이라는 점도 부산 시민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

오 당선자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청년 자산가 키우기’ 역시 신선한 공약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시재생사업과 대규모 주택 및 산업용지 개발 과정에서 청년에게 ‘적립식 우선 매입권’을 부여하거나 ‘적립식 청년 간접투자상품’을 개발해 상업용 복합건물 등에 대한 자본투자 또는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

체적인 계획안도 내놨다. 반면 서병수 현 부산시장의 ‘심판론’도 오 당선자의 승리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금지하려고 부산국제영화제(BIFF)에 압력을 행사했고, 서 시장이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금까지도 부산시는 BIFF의 운영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오 당선자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하며 영화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한편 부산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오 당선자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부산 민심은 가덕도의 경제성을 의심하는 시각과 인천공항처럼 새로운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경남에서는 노무현의 ‘복심’으로 불렸던 김경수 후보가 도지사로 당선됐다. 김경수 당선자 역시 지난 2012년 총선, 2014년 지방선거에서 모두 보수의 텃밭인 경남에 도전하며 조금씩 입지를 다져나갔다. 머리가 땅에 닿을 듯이 출근길 인사를 하는 모습은 김 당선자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이에 지난 지방선거 낙선 후 경남에서는 “다음엔 김경수”라는 여론이 커지기도 했다.

또 꺼져가는 경남의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여당 후보가 필요하다는 민심도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당선자는 선거운동 내내 “대통령과 여당의 지원을 받아 예산을 쏟아부을 정도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경남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김 당선자의 주요 공약은 ‘제조업 르네상스’다. 그는 조선·기계부품 위주의 편중된 산업구조로 인한 경남의 일자리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제조업을 혁신하고 산업지도를 확대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다만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선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남이 ‘통큰 지원’ 받기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상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이에 대해 주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남에 예산 지원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힘을 실어준 상태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한반도 평화 거대담론에 견제론 약발 안먹혔다

광역단체장

더불어민주, 17곳 중 14곳 석권
자유한국, 경북·대구 겨우 지켜

13일 치뤄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과 관련해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내세운 남북평화론과 문재인 정부 성공론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특히, 야당이 선거기간 내내 내세웠던 문정부의 '경제실패론'과 '일당 독재 견제론' 보다는 대안없는 보수를 심판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 안철수·유승민 공동대표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가 발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 출구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곳의 광역단체장 중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한 14곳을 민주당이 석권한 것으로 예측했다. 자유한국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의 경북과 대구를 겨우 지키는데 머무른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선거'로 규정하고 남북, 북미정상회담 등 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반도 평화의 여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주미에 대표는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5월 31일 서울 중랑구를 찾아 "문재인 정부에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줘 평화와 번영이 이뤄지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도 "힘을 합하면 대한민국 통일이 앞당겨진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또한 '판문점 선언'이 있었던 파주를 찾아 "파주가 대한민국 끝이 아니라 평화 공동체 관문이 될 것"이라고 하며 남북평화론을 강조했다.

주 대표는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2일에도 "또다시 냉전세력과 국정정의 발목을 잡는 세력에 지방 살림을 맡길 수 없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단호하고 분명한 선택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선거 기간 내내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파탄 책임론'을 제기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 정권은 소위 '소득 주도 성장론'을 앞세웠지만 결과는 참담한 지경"이라며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국민 소득은 감소했고 경제 성장 엔진은 꺼져 버렸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문재인 정부는 출범 1년 동안 환상에 불과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를 방문해 개표방송 출구조사를 지켜보던 중 눈감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경제를 망쳤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선거 중반 일당 독점 체제의 위험성을 부각하는 '문재인 정부 견제론'으로 선거 분위기를 바꾸는데 안간힘을 썼다. 또한 지방선거 하루 전에 열린 북미 정상회담의 평가에 대해서도 실속 없는 회담이었다고 혹평하며 북미정상회담 효과 차단에 주력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북미 정상이 회담 후 내놓은 공동성명에 대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도 없고, 구체적인

북핵폐기 방안과 아무런 실질적인 내용도 없는 합의문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지금 경제가 무너져내리고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결과로 우리 안보도 파탄 지경으로 가고 있다"면서 "오늘 반드시 투표해서 깨어있는 국민의 힘으로 안보와 경제를 바로잡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야당의 이 같은 호소에도 민심은 오히려 대안 없는 보수를 심판함에 따라 향후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안철수·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등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최승훈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1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당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오른쪽)와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섭(앞 줄 가운데) 광주시장 후보가 13일 오후 광주 서구 선거캠프에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보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가 13일 오후 전남 순천시 조례동 선거사무실에서 6·1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부인 정라미씨의 손을 잡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민주 '환호' 자유한국·바른미래 '침울'

출구조사 결과에 희비 갈린 與野

6·13 지방선거의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완승했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각 당은 '환호'와 '침울'로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 압승 예측에 뜨거운 환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7회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17곳 중 14곳 광역단체장을 휩쓰는 등 압승이 예상되자 잔칫집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TV 화면에 '광역단체장 14곳 승리' 자막이 뜨자 주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와아!"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고 환하게 웃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를 비롯해 후보들의 승리가 예상되는 수치가 하나씩 소개되는 동안에도 환호성은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총력을 다했던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비롯해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와 송철호 울산시

장 후보의 승리 예측이 흘러나오자 환호성과 박수 소리는 더 커졌다.

재보선 예측 결과 서울 송파를 최재성 후보의 승리가 점쳐지자 환호성은 다시 커졌고, 상황실에서 함께 개표를 지켜보던 최 후보는 주 대표와 악수하며 기쁨을 표현했다.

◆한국, 탄식조차 없는 침묵
자유한국당은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탄식조차 없는 침묵 속에 빠졌다.

오후 6시 정각, 한국당의 '참패'를 예측하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종합 상황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에 조용해졌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와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홍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출구조사 자막이 뜬 TV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눈을 감았다 뜨며 침뚫는 표정을 지었다. 홍 대표는 10분가량 출구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방송뉴스를 지

켜보다 상황실을 떴다. 홍 대표는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에게 "조금 있다가(하겠다)"라고 짧막한 답변만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보수 혁신·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게 오늘 그 결과로 여실히 나온 것 같다"며 "말이 필요 없이 모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당 수습 방안에 대해 "내일의 태양은 내일 떠오르지 않겠느냐"며 "오늘까지는 어떤 이야기도 하기 어렵다"고 언급을 자제했다.

◆바른미래, 광역단체·재보선 '0석' 침뚫
바른미래당은 투표 종료와 함께 발표된 방송3사의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선 출구조사 결과 전패 위기에 놓이자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특히 당 전체가 사활을 걸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에게조차 밀려 3위에 그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충격이 더욱 큰 모습이었다. /이범종·김정정 기자 joker@

6·13 투표율 60%... 역대 두번째 기록

전남 69% 최고·인천 55% 최저

6·13 지방선거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60%대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유권자들이 여당의 남북평화론과 문재인 정부 성공론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열린 지방선거 투표율은 60.2%였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1회(68.4%) 이후 줄곧 50%대에 머물렀다. 2014년 6·4

선거 당시 투표율은 56.8%였다.

이번 선거의 높은 투표율은 20.14%를 기록한 사전투표에서 예고됐다.

26.06%인 지난 대선을 제외하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12.19%), 제6회(2014년 6·4) 지방선거(11.49%)의 두 배 수준이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곳은 전라남도가 69.3%로 제일 높았다. 반면 인천광역시 55.3%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

지난 6·4 선거 당시 투표율은 전남이

65.6%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52.3%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5번의 선거 가운데 투표율 70%를 넘긴 선거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75.8%)와 제19대 대통령 선거(77.2%) 뿐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60%를 넘기지 못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54.2%,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58%를 기록했다.

지방선거 투표율도 50%대를 유지해왔다. 2010년 54.5%였던 투표율은 2014년 2.3%포인트 오른 56.8%를 기록해 60%를 한참 밑돌았다. /이범종 기자

TK-제주만 빼고... 전국 '파란색 천지'

제7회 지방선거 유력 광역단체장 프로필

서울특별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단국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졸업
前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前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경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前 성남시장
前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충청남도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졸업 (법학석사)
前 제17, 18, 19, 20대 4선 국회의원
前 20대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충청북도

최문순 더불어민주당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졸업 (문학석사)
現 강원도지사
前 제18대 국회의원

대전광역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前 인천 남동구(갑) 국회의원(재선)
前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부산광역시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행정학석사)
前 부산광역시 시장 권한대행
前 해양수산부 장관

경상남도

이철우 자유한국당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정치학 석사)
前 경상북도 부지사
前 제18, 19, 20대 3선 국회의원

경상북도

권영진 자유한국당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정치학박사)
現 대구광역시 시장
前 18대 국회의원

전라북도

송하진 더불어민주당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現 민선6기 전라북도지사
前 민선4, 5기 전주시장

전라남도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맥스웰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前 문재인정부 초대 농식품부장관
前 제18대, 19대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무소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現 제주특별자치도지사
前 제16, 17, 18대 국회의원

대구광역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現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
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장관급)

전라북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졸업
前 제20대 국회의원
前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전라남도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 박사)
前 문재인정부 일자리위원회 초대 부위원장
前 노무현정부 행정자치부 장관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80대부터 대학생까지 투표 열기... 난동·훼손 사건사고도



6.13선거 이모저모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하비에르 국제학교에 마련된 평창동 제3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가족들이 투표 인증샷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투표소에 유권자 행렬 투표용지 훼손·촬영 '눈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일인 13일 전국 투표소에서는 소신을 담은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자식의 부축을 받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면서도 설레는 표정을 숨기지 못한 여든 살 넘은 할머니부터 '2030' 젊은 유권자까지 세대를 막론하고 부지런한 유권자들은 일찌감치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하지만 경기도 내 곳곳에서 투표인

들이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표 참관인들과 승강이를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종로구 종로 1~4가동 제1투표소인 교동초등학교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37)씨는 "오늘 쉬는 날이라고 어쩔만 친구들과 오랜만에 놀았더니 아직도 피곤하다"며 "종일 늘어질 계획인데 눈을 뜬 김에 투표를 하러 왔고 다시 침대로 직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부모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대학생 이새롬(24)씨는 초등학교 입구에서 다 같이 찍은 인증샷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 올렸다. 이씨는 "아직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학교에 공부하러 가야 한다"며 울상을 짓기도 했다.

○...종로구 효제초등학교(종로 5·6가제 1·2투표소)에서 만난 김옥순(89) 할머니는 흰 면장갑을 낀 손으로 지팡이를 짚어 가며 투표소까지 걸어와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김 할머니는 "큰아들이 1950년생인데 셋째까지 모두 이 학교(효제초)를 나왔다. 매년 여기에 와서 투표하고 있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고양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가 투표 사무원에게 적발됐다. 이 유권자는 해당 투표용지를 '투표용지 공개'로 처리하자 부당하다며 투표함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앞서 오전 8시께는 오산시 한 투표소에서 투표인이 기표소에 들어가기 전 투표소를 사진 촬영,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삭제했다.

○...투표용지 훼손도 곳곳에서 이어졌다. 평택시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8시 25분께 유권자가 교육감 투표용지 1장을 투표함에 넣지 않고 나가려는 것을 투표 사무원이 발견, 투표함에 넣을 것을 요구하자 "내 마음이야"라고 외치며 용지를 찢고 그대로 투표소를 나갔다.

/이법종·김현정기자 joker@metroseoul.co.kr

‘스캔들 영향 없었다’... 이재명 경기도 공약 성공

각종 구설수에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
더민주, 경기도서 20년 만에 지사 배출
입지 굳히고 유력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

더불어민주당이 ‘난공불락’이었던 경기도를 무너뜨렸다. 지난 1998년 임창렬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20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지사를 배출한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여배우 스캔들’ 등 각종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됐다.

이 당선자의 승리 배경은 여당 프리미엄과 함께 검증된 시정 능력이 꼽힌다. 그는 선거 기간 내내 성남시장 임기 때의 정책 성과를 내세웠다. 지난 8년 동안 성남시의 무상급식, 청년배당, 6700억원 부채 상환 등 그의 대표 업적이 부각됐다. 경기도민들은 “이재명의 실천력과 추진력은 높게 평가한다”며 표를 던졌다.

13일 이 당선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한 세상, 자부심 넘치는 경기도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재명에게 투표해 달라”며 지지를 호

소했다. 이 당선자가 향후 문재인 정부와 발을 맞춰 경기도를 운영해 나갈 것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경기 퍼스트’ 공약을 내세우며 경기도 경쟁력 강화를 약속했다. 경기도를 서울의 변두리나 외곽이 아니라 서울과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동북아평화경제공동체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제·지방세 세입 구조 개선,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기순환고속도로’로 개명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의 공조(共助)가 필수적인 공약들이다.

아울러 이번 당선은 그를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3위를 차지했지만 2위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의혹으로 정계를 잠정적으로 떠나게 되면서 1순위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다. 정당 내 입지가 좁은 것이 그의 단점이지만 문재인 정부와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다면 당 내 입지도 넓어질 전망이다. 여당 내 앞서가는 ‘잠룡’으로서 탄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당선자는 성남시장으로서 증명한 복지정책

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배당, 무상교육, 공공산후조리 지원 등 ‘3대 무상복지’를 우선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배당’ 정책 시행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성남시는 ‘청년배당’을 통해 성남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 누구에게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했고, 그 결과 성남지역 화폐 유통량은 2015년 133억원에서 2016년 249억원으로 1.8배나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만 18세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경기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이재명표 복지 정치’ 행보는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당선 이후에도 ‘여배우 스캔들’은 이 당선자의 발목을 잡는 개운치 않은 대목이다. 바른미래당은 이 당선자를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만약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사진=손진영 기자 son@

한편 이 당선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장에서 일하며 고입·대입 검정고시를 치렀다. 이후 중앙대 법학과에 입학해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대 후반까지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 일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재선에도 성공해 8년간 시장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 인지도를 높였던 이 당선자는 이제 대권도전에도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진영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



연립뉴스 13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당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오른쪽)와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박수치고 있다. /연립뉴스

제주·대구·인천 등 격전지, 이번은 없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대 승부처로 분류됐던 경기, 제주, 대구, 인천 등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에서 이번은 없었다.

13일 오후 6시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가 발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 출구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각종 논란에도 선거기간 내내 대세를 유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예측됐고, 제주도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원희룡 후보가 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맹렬한 추격을 뿌리치고 당선된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당의 뒷받침으로 분류되는 대구는 민주당 임대운 후보의 추격을 물리치고 한국당 권영진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예측됐다. 인천은 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현직 시장인 한국당의 유정복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지사 선거는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후보가 독식했던 자리로 민주당 내 차기 대선주자로 유력한 이재명 후보가 도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현 지사인 남경필 후보와의 대결에 큰 관심을 모았다.

여야 모두 놓칠 수 없는 승부처였던 만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거침없는 비방과 폭로전을 펼치기도 했다. 한국당 남경필 후보와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사건과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이어

제주 네거티브 공방속 원희룡 당선

대구 ‘보수 철옹성’ 권영진 뺨차

인천 유정복 한국당 현직 시장

누르고 민주당 박남춘 당선

이번에는 여배우 스캔들 등을 언급하며 협공을 펼쳤다. 여배우 스캔들을 놓고는 야당뿐 아니라 소설가 공지영 씨에 이어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내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해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다.

제주지사 선거에서도 이른바 ‘공짜 골프’ 논란으로 후보 간 형사고발을 주고받는 등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무소속 원희룡 후보의 리조트 특별 회원권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하자 원 후보 측도 무고죄 고소로 반격했다.

이런 가운데 두 후보는 치열한 정책 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대표적인 정책이 ‘청년일자리’ 공약으로 원 후보는 자신의 첫 공약으로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했고 문 후보는 이에 맞서 민간·공공부문 인턴십 지원과 같은 ‘청년뉴딜 일자리’ 확대, 사회경험·전문기술·직무교육 등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 청년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또한 “제주도민의 자유로운 육지부 나들이를 위해 항공료와 뱃값의 50%를 지원하고, 택배비·물류비 지원을 통해 도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의 물류비용을 낮춰 도내 생활물자 가격 인하 효과를 내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맞서 원 후보는 문화예술인, 소상공인, 사회복지사 등 매일 특정 대상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한국당의 뒷받침을 해온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은 선거 막판 최근 및 따른 여론조사에서 ‘보수 철옹성’으로 여겨져 온 대구에서마저 변화의 조짐이 강하게 일자 추미애 당 대표까지 나서 지원 유세를 벌이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임대운 후보는 추 대표 등 당 지도부의 대대적인 지원 속에 대구·경북 첫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자리 만들기에 열을 올렸다.

반면, ‘수성’에 나선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대구도 세몰이나 청중 동원 방식은 지양하고 되도록 시민들을 눈높이에서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운동 막판 한국당 정태욱 의원의 이른바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더 망하면 인천 간다)’ 발언 논란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인천시장 선거는 역시 한국당의 유 후보가 현직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에도 성난 민심을 돌리기에 역부족이었다.

사진=최신용 기자 grandtrust@

더민주, 호남텃밭 가볍게 사수

전남도지사 김영록

광주시장 이용섭 당선

민주당의 지역적인 기반인 호남과 광주 지역은 더욱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철옹성 같은 지지층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광역시 이용섭 후보가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며 시장으로 당선됐다. 광주시장 선거는 출구조사에서 이용섭 민주당 당선인이 83.6% 득표율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나경재 정의당 후보가 6.2%, 전덕영 바른미래당 후보 5.1%, 윤민호 민중당 후보가 5.0%로 치열한 ‘2위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용섭 후보는 남성과 여성, 전 연령대, 전체 5개 자치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고, 직업별로는 자영업·블루칼라·화이트칼라·가정주부·학생·농림어업 종사자 모두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광주 두암동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일찍부터 자녀의 손을 잡고 편안한 복장으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로 붐볐다. 자녀를 품에 안은 채 투표소를 찾은 임아름(34)씨는 “집으로 배송된 선거공보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살펴봤다”며 “후보자들의 공약이 현실성 있는지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자들이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선거운동기간 “문재인 정부와 소통할 수 있고 집권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민주당 시장·구청장·시구의원 후보들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 광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광주 경제를 활성화시켜 사람과 돈과 기업이 몰려오는 200만 광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며 “때로는 격려해주시고 때로는 아픈 회초리로 지금껏 키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시민들의 은혜에 결초보는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당선인은 장애인 직업교육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섭(가운데) 광주시장 후보가 13일 오후 광주 서구 선거캠프에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보고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연립뉴스

설치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 등이 동권 보장과 장애인탈시설자립지원조례 제정, 장애인 회관 건립을 약속했다.

호남지역에서는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호남 지역 정당인 민주평화당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영록 민주당 전라남도지사 후보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다. 출구조사에서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82%를 차지하며 8.3%의 민영삼 민주평화당 후보를 따돌렸다. 김 당선인은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과도한 카드결제 수수료 및 카드단말기(VAN)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핀테크(Fin-Tech) 기술을 활용한 ‘고향사랑 전남페이’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카드수수료 없는 ‘고향사랑 전남페이(J-pay)’ 도입과 ‘전남 새천년 상품권’ 발행을 통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민주당과 평화당이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목포에서는 유권자층에 따라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목포 북항동사무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직장인 박종현(38)씨는 “젊은 유권자들(더불어민주당)과 고령의 유권자(민주평화당) 사이에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며 “이번에 당선된 후보가 지역 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

어게인 2002~ 월드컵 분위기 띄우는 현대기아차·KT

현대기아차

역사상 최고 소장품 전시회 개최

KT

18·23·27일 서울광장 거리응원

국내 기업들이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에 맞춰 다양한 마케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 등 국내외 이슈로 분위기는 예전만 못하지만 기업들이 월드컵 붐업을 일으키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FIFA(국제축구연맹) 공식 후원사인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월드컵 개막에 맞춰 자사 제품 홍보는 물론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마케팅에 돌입했다.

월드컵 마케팅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현대·기아차다. 이 회사는 FIFA와 협업해 '현대 모터스튜디오 모스크바'에서 FIFA 월드컵 역사상 최고 소장품 및 전 세계 축구 애호가들의 응원 문화 전시회를 연다. 특히 세계 최초로 스위스 취리히 소재 FIFA 세계 축구 박물관에 소장된 주요 전시품을 옮겨 와 월드컵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러시아 월드컵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지원차량 총 954대도 제공했고, 국내에서는 서울·부산 등에 6종류의 야외 응원용 팬파크를 조성하고 K5·K7의 월드컵 한정판 모델까지 내놨다.



지난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영동대로에서 열린 월드컵 거리응원전의 모습. 모델들이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거리응원 진행 소식을 알리고 있다. /KT

또 현대차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 앞 영동대로 일대에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국가대표팀 거리응원전을 펼친다. 현대차는 영동대로 7차선 580m 구간에 메인 무대를 포함해 모두 3개의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과 SM타운 외벽에 설치한 전광판으로 경기 영상을 중계하고 응원전을 만들 예정이다. 스웨덴전(18일)을 시작으로 멕시코(24일)와 독일 전(27일) 등 국가대표팀 경기 일정에 맞춰 진행한다.

이동통신 업계는 KT가 가장 적극적이다. KT는 14일부터 열리는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을 맞아 대한민국 예선전 경기가 열리는 18일, 23일(24일 자정 경기),

27일에 광화문 광장과 서울 광장 일대에서 대한축구협회 및 붉은악마와 함께 대대적인 거리응원을 진행한다.

KT는 대한축구협회의 공식 후원사로 지난 17년간 월드컵을 비롯한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지원하고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부터 거리응원을 이끌어왔으며 TV 광고와 온·오프라인 이벤트, 공식 응원가를 제작하는 등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사 경쟁력을 알리기 위한 해외 마케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성전자는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서 대형 TV 시장 선전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브라질 법인이 공개한 'Emotion for Strong Hearts(가슴을 뛰게

하는 감성)'라는 제목의 홍보 동영상 이그 대포적 사례다.

또 브라질에 판매되고 있는 UHD TV에 스포츠 경기 시청에 특화된 앱도 탑재했다. 이 앱을 통해 스포츠 경기를 4K 초고화질 화면으로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경기를 시청하면서 출전 선수 정보, 팀 전적 등의 정보도 볼 수 있다.

LG전자는 세계적 축구스타 카카가 등장한 동영상 앞세워 LG TV의 성능 알리기에 나섰다. 카카가 일명 'LG 나노셀 TV'로 불리는 프리미엄 LCD TV의 시야 각 성능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조회수 2억 건을 넘어섰다.

국내에서는 실무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양사는 일부 TV의 판매가를 낮추고, 사은품 증정 정도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게임업계는 월드컵 시즌에 맞춰 신작 축구게임을 대거 발표하고 기존 축구 게임들은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월드컵 시즌에 온라인 축구 게임 피파온라인4를 선보인 넥슨은 피파 월드컵 모드를 업데이트하며 월드컵 특수를 위한 준비에 나선다.

피파 월드컵 모드는 32개 본선 진출국을 선택해 실제 월드컵처럼 경기를 진행하는 모드로 32강 조별 예선부터 16강 토너먼트, 우승까지 경험하는 VS COM 모드와 16강전부터 시작해 다른 유저와 토너먼트식으로 경기를 진행해 4승시 대회에서 우승하는 VS 유저 모드 등으로 이뤄졌다.

컴투스도 브라질 월드컵 시즌을 맞아 출시했던 축구 카드 RPG '사커스피리츠'의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 등 중요한 행사와 겹치면서 월드컵 분위기가 예전만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며 "첫 경기 결과에 따라 분위기가 좌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 경기에서 비기거나 승리하면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국내 기업들의 마케팅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QLED TV로 즐기는 게임, 게이머들 주목

삼성전자 E3서 체험공간 마련

삼성전자가 최대 게임쇼인 E3에서 대형 QLED TV로 우수한 몰입감과 게이밍 경험을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12일부터 14일까지(현지시간) 3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E3 2018'에 참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엑스박스(Xbox)의 메인 전시장에 75형 QLED TV 10대로 체험공간을 준비했다.

E3는 게임·엔터테인먼트 업체 400여개가 참여해 신작 게임과 기기들을 공개하는 전시회로, 비디오 게임 분야의 3대 게임쇼이다. 삼성전자는 MS의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전시에서 '엑스박스 원 엑스'의 공식 4K TV 파트너인 QLED TV를 통해 생동감 있는 4K HDR 게임 영상을 보여



12일 게임쇼 E3 2018 삼성 QLED TV 체험관에서 관람객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삼성전자

줬다.

삼성 QLED TV는 사용자가 게임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게임 모드로 전환해 주고, 0.015초에 불과한 입력 지연으로 최고 수준의 게임 환경을 제공한다. 컬러볼륨 100%와 HDR 2000의 밝기 등 초대형 QLED TV의 차별화된 화질로 게임 속의 빠른 그래픽을 그대로 재현하며 우수한 몰입감을 제공한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SKT·KT, 글로벌 무대에서 5G 기술력 입증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잇따른 수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SK텔레콤은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적 권위의 글로벌 ICT 어워드 '테크XLR8 2018'에서 자사의 네트워크 관리 기술 '탱고'와 'T-MANO'로 '최우수 네트워크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테크XLR8 2018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기관인 인포마 텔레콤앤미디어가 주관한다.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탱고'는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기반으로 네트워크 문제점을 찾아 스스로 해결하고 최적화한다. SK텔레콤은 2016년 12월 유선망에

'탱고'를 적용하고, 지난해 10월 무선망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KT도 12일(현지 시간) 인포마 텔레콤 앤미디어 주관으로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5G 월드 어워드 2018'에서 '최우수 5G 코어망 기술상', '최우수 IoT 사업자상', '올해의 블록체인 혁신상' 총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최우수 IoT 사업자상'은 KT가 이미 상용화 완료한 '기가 IoT 전광판'을 출품해 수상하게 됐다. KT IoT기술과 LED 사이니지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광고 콘텐츠 변경하고 제어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차기회장 후보 11명으로 '압축'

포스코최고경영자 승계 카운슬

외부 후보군 6명·내부 후보군 5명

포스코 최고경영자(CEO) 승계 카운슬은 차기 회장 후보군을 총 11명으로 압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카운슬은 전날 전체 사외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6차 회의를 열고 외부 후보군을 11명에서 6명으로, 내부 후보군을 10여명에서 5명으로 각각 압축했다.

카운슬은 지난 7일 발표 당시 외부에서 추천받은 후보들이 총 8명이라고 발표했다. 그사이 서치펌을 통해 후보자를 추

가 발굴해 11까지 늘렸다가 이번 회의에서 다시 6명으로 축소했다. 카운슬은 다음 회의에서 내·외부 후보자를 통틀어 5명 안팎의 심층면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카운슬은 다음 회의 일정이거나 이번에 압축된 후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카운슬은 또 최근 포스코 차기 회장 인선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선을 그었다.

카운슬 관계자는 "현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100년 기업 포스코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CEO 후보를 선정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이 정치적 연관

설, 특정 후보를 내정했다거나 배제했다는 설 등을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 CEO 후보 선정작업에 악영향을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60조원의 매출과 1만7000명이 넘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포스코는 권오준 회장의 사외이사 이후 차기 CEO 선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는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아닌 기업 자율에 맡겨질지가 관심이다. 정·재계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설은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한다.

/양성문 기자

LG전자, 가성비 최고 중가형 'Q7' 출시

LG전자가 15일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중가형 Q시리즈의 신작 LG Q7을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한다.

LG Q7은 18:9 화면비의 5.5인치 '풀비전' 대화면이 채택돼 사용 편의성과 화면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메탈 프레임과 곡면 글라스는 매끈한 심미성과 뛰어난 그립감을 선사하면서 충격에도 강하다. LG Q7은 미국 국방부가 인정하는 군사 표준 규격 'MIL-STD810G', 일명 '밀스펙'의 14개 항목을 통과했다. 방수방진 성능도 최고 등급인 IP68을 충족시킨다.

LG Q7의 주요 기능으로는 ▲사진을 찍으면 이미지 검색으로 피사체의 정보까지 알려주는 똑똑한 카메라 AI 'Q렌즈' ▲셀카를 찍을 때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인물에만 포커를 맞춰 더욱 돋보이게 하는 '아웃포커스' ▲위상 검

출 자동 초점(PDAF) 기술로 초점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잡아주는 후면 1300만 화소(LG Q7+는 1600만) 카메라 탑재 등이 있다.

이밖에 LG G7 씽큐에서 스마트폰 최초로 선보인 'DTS:X' 입체음향 기술도 적용됐다. DTS:X는 어떤 콘텐츠라도 향상된 입체음향 효과를 냄으로써 영화와 게임 등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또, 지문 인식 버튼에 손가락을 갖다대는 것만으로 셀카를 찍거나 화면을 캡처할 수 있는 '핑커 터치', 고속충전을 지원하는 USB C 타입 포트 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급 편의 기능을 대거 탑재했다.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기에 갖다 대면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결제되는 LG전자 온·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LG 페이, 데이터 소모 없이 즐길 수 있는 HD DMB와 F



LG전자가 15일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중가형 Q시리즈 신작 LG Q7을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한다. /LG전자

M라디오도 적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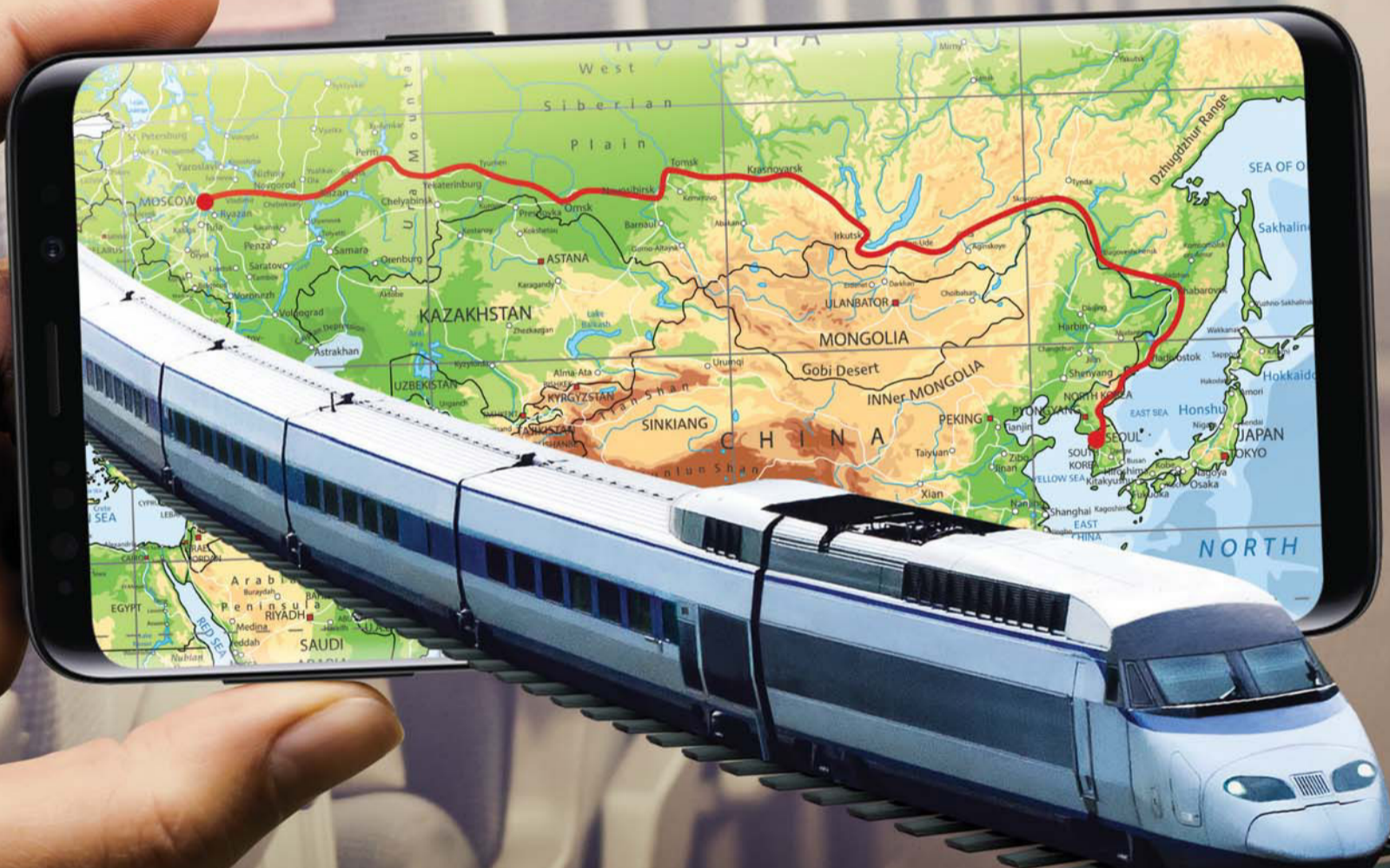
LG전자는 메모리를 늘린 LG Q7+를 함께 선보여 선택의 폭도 넓힌다. 가격은 램과 저장공간이 각각 3GB와 32GB인 LG Q7이 49만5000원, 4GB와 64GB인 LG Q7+가 57만2000원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서울에서 모스크바까지 열차로 33번 왔다 갈 수 있는 KT 배터리 절감기술

매년 21.35GWh의 에너지를 절감해주는 KT 배터리 절감기술-
열차로 서울에서 모스크바까지 33번을 왕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테스트 결과 (YouTube연속재생 기준)

KT 배터리 절감기술 (C-DRX)

데이터 송수신 주기를 최적화시켜
서비스 품질은 그대로!
배터리 사용시간은 최대 55% 더 길게!

PEOPLE. TECHNOLOGY. kt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테스트결과 (성적서번호 : TTA-18-0316), 갤럭시 S9 배터리 방전시까지 YouTube연속재생 기준 : 무선환경 및 단말모델에 따라 이용시간 증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홈페이지 참조 · 한사람이 하루에 3,000mAh의 스마트폰 배터리 1개를 사용하며, 스마트폰의 입력 전압이 5V라 가정하였을 때, 동일 배터리 소모 전력은 15Wh · TTA 실험결과 C-DRX 기술 적용 스마트폰은 비 적용 스마트폰 대비 최대 배터리 잔량 차이가 31%로 검증되었으며, 이때 스마트폰 1대당 절감되는 소모 전력은 최대 4.5Wh · 약 1천 3백만 명의 KT LTE 고객이 배터리 절감기술로 아낄 수 있는 전력은 일일 최대 58,500kWh, 연간 최대 21.356GWh · KTX : 서울에서 부산까지 441KM 편도 운행에 사용되는 전력량 14,010kWh를 서울에서 모스크바 철도 거리(14,716KM)에 환산함.

남북경협 기대감 고조... '보험 블루오션' 선점 준비를

리스크 관리 보험 상품 필요성 제기
민간보험사, 시장 참여 적극 검토해야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민간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온다.

과거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입주 기업들의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액이 수 천 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향후 후속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 대상 보험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개성공단 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1년여 간 기업들이 입은 총 손실액은 1조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가동 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은 전체의 21%에 달하는 3147억원으로 집계된다.

다만 당시 개성공단 업체 104개사 가운데 경험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12일 싱가포르의 센트사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2945억원으로 영업손실액에 크게 못미쳐 기업들의 피해가 컸다. 경험 보험금으로 업체당 28억3000만원이 지급됐지만 10여 개사는 손실 규모가 보험 한도를 초과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고 발생지역이 북한(개성공단)이다 보니 사고 조사

와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남북 경제 교류 관련 보험인 교역보험의 경우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경협·교역 보험은 북한의 신용도나 현장 사고조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통 일부가 관리하는 정책보험이다. 남북 협

력기금을 수탁관리하는 수출입은행이 운영한다.

실제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남북경협 보험제도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도입한 경험보험의 경우 기업별 보험 가입 한도는 2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후 2006년 50억원, 2009년 70억원으

로 보장 한도를 올렸지만 기업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당시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고 원인 조사 등 한계가 있는 만큼 사고 발생 후 보험가액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미리 합의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중단에 따른 휴업 손실을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 등 상품 개발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 들어 잇단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경험 사업 재개가 전망되면서 교역보험 등 리스크 관리 상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선 금융당국은 물론 민간 보험사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민간 보험사의 경우 북한 보험시장 선점 차원에서 경험 보험 시장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보험 네트워크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삼성증권 "한반도 번영의 시대 도래"

업계 첫 북한투자전략팀 첫 리포트
'한반도 CVIP의 시대로' 발간

업계 최초 북한 전담 리서치팀인 삼성증권의 북한투자전략팀이 13일 첫 리포트를 내놨다.

리포트 제목은 '한반도 CVIP(Complete, Visible, Irreversible Prosperity)의 시대'다. 제목에 담긴 의미는 한반도에 완전하고 가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삼성증권은 이번 리포트에서 남북의 통일에 따른 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북한투자전략팀장은 "그동안 독일의 통일과정을 참고해 활용했던 이른바 '통일비용'이 일시적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 규모가 과도한 부분이 있다"며 "북미회담의 후속조치로 점진적인 경제개방과 통합이 진행될 경우 이보다 적은 '통합비용'으로 경제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북·일 수교과정에서 대일청구권이 이슈로 부상하면 이는 북한 재건의 중장기 이슈로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 팀장은 "지난 2002년 북한 김정일과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북·일 평화선언 제



유승민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장. /삼성증권

결 당시 100억 달러 수준에서 청구권 자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다"며 "북한이 이 자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경제재건의 종착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경제재건의 우선 목표는 낙후된 인프라 조성이 될 것으로 봤다.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특구와 개발구 중심으로 경제개방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5대 경제특구와 19대 경제개발구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간에서 남북 경협이 보다 발전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렌탈케어+할인혜택' 카드사 렌탈시장 공략

실적위기로 수익원 창출 나서
2020년 시장규모 40조원 육박

카드사들이 렌탈가전업체와 손잡고 렌탈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렌탈시장이 확대되면서 고객의 니즈가 발생한 데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실적위기로 새로운 시장을 찾아 수익원을 창출해야 하는 카드사의 고심이 깊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렌탈 회사와 제휴를 맺거나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렌탈제품을 통한 수익원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 등 7개 카드사 모두 렌탈 관련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렌탈 품목은 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식기세척기·안마의자·의류건조기·학습기 등 다양하다.

실제로 삼성카드는 지난해 '삼성카드 렌탈' 플랫폼을 오픈해 생활가전 뿐만 아니라 유명작가의 그림, 건강 및 취미관련 상품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카드는 '라이프샵 렌탈' 서비스를

<카드사 렌탈 서비스 혜택>

카드사	플랫폼명	혜택
삼성카드	삼성카드 렌탈	• 렌탈료 자동납부신청시 최대 14%의 할인 (36개월) • SK매직, 코웨이, 청호나이스, 바디프렌드, 등의 업체와 제휴 • 생활가전(TV), 유명작가의 그림, 건강 및 취미 관련 상품 등 새로운 렌탈 상품 추가
신한카드	스마트렌탈	• 렌탈료 자동납부신청시 월 최대 1만 5000원까지 할인 • 구입할 때 목돈이 들어가는 가전, 가구 등에 대해 일정 기간 계약을 맺고 매월 렌탈료만 받는 서비스
우리카드	위비마켓 렌탈	• 렌탈료 자동납부신청시 월 5000원 할인 (24개월) • LG전자, SK매직과 제휴
하나카드	렌탈 전용몰	• 렌탈료 자동납부신청시 렌탈료 금액에 따라 하나머니 차등 지급 • SK매직과 제휴

/자료=각 사 홈페이지

제공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정수기부터 자동차까지 모두 렌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리카드는 '위비마켓 렌탈' 플랫폼을 통해 LG전자와 SK매직 가정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카드사들이 이처럼 렌탈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렌탈시장의 밝은 전망이다. 1인 가구 증가와 경기불황 등으로 국내 렌탈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데다 고객들이 구매보다는 렌탈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생활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KT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렌탈 시장의 규모는 지난 2011년 15조5000억원에서

2016년 25조9000억원대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4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하나는 '꾸준한 수익발생'이다. 렌탈의 경우 렌탈료 자동이체신청이 되면 카드사에 꾸준한 수익이 발생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 아파트 관리비 처럼 꾸준한 수익이 창출될 수 있고 고객에게 다양한 할인도 제공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라며 "렌탈 시장이 확대되면서 고객에 맞춤형 다양한 상품을 내놓기 위한 카드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자영업자 대출 급증한 상호금융 경영진 면담

감독당국이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조합을 직접 방문해 경영진 면담을 실시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신협과 농협을 방문해 건전성 관리강화와 리스크관리방안 등에 대해 경영진과 면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면담 대상에 오른 조합은 신협 16개, 농협 16개로 총 32개다.

최근 규제 강화로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은 여전히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 4월 말 기준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은 234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0.2%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은 49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10.9%나 늘었다.

금융원은 조합별 개인사업자대출의 현황·특징, 급증사유 및 건전성 현황과 리스크 관리방안 등에 대해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해당조합별 자금 조달·운용상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 관리와 함께 부동산 등 특정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금융원은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 모니터링 대상조합을 50개에서 60개로 확대하고, 신협중앙회 등 각 중앙회와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상미 기자

줄지 않는 코스닥 불성실공시... 올 46건 지정

공시 전문인력·시스템 부족 등 원인

코스닥 기업의 불성실공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13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말 현재까지 코스닥 기업의 불성실공시 지정건수는 46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건이 늘었다.

최근 5년간 코스닥 기업의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건수는 2014년 48건에서 2016년 72건, 2017년 71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유가증권 기업은 2017년 11건에 불과했다.

불성실공시 유형으로는 중요 사항에 대해 공시의무가 있음에도 공시를 하지

<코스닥 기업의 불성실공시 세부내용>

	2014	2015	2016	2017
최대주주·경영권 변동	9	10	10	18
유상증자	7	4	9	10
단일판매·공급계약	6	3	6	4
대출·사채원리금 미지급	5	1	2	1
실적예측공시	2	4	2	2
조회공시	2	2	7	0
타법인주식 취득·처분	2	10	6	8
최대주주의 주식담보 제공	2	1	14	5
소송	1	8	2	5
기타	12	10	14	18
합계	48	53	72	71

(단위: 건)

/자료=한국거래사 공시시스템

않는 경우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이미 공시한 사항에 대해 반복해 제재

받는 경우도 증가 추세다.

코스닥 기업의 지정건수가 유가증권 기업에 비해 많은 이유는 코스닥 상장기업 수의 증가 및 공시 전문인력 부족, 기업 내부의 정보 전달 시스템의 부족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본시장연구원 홍지연 선임연구원은 "최근 불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제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기업의 불성실공시 지정건수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코스닥 기업의 공시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강화 못지않게 기업 내부의 공시 전문인력 확보와 공시 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통한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

남북 접경지역서 與 독식... 수도권 중심 경험 '순풍'

-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
상하수도 개량·대중교통 체계 협력
-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경기북부에 통일경제특구 산단 조성
- 최문순 강원도지사 당선인**
설악·금강산, 동해안 관광벨트로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당선인**
인천·해주·개성 '경제자유구역' 추진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남북교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은 서울·평양 교류 활성화 공약으로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서울·평양 공동개최 추진 ▲경평축구 부활 ▲서울·평양 간 도시 협력 ▲서울·평양 문화예술 교류를 공약했다.

서울과 평양의 도시 인프라 협력을 위해 평양 상하수도를 개량하고, 대중교통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저녁 서울 중구 명동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의 환호에 엄지를 치켜들고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영체계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제협력에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식생동물 종자교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교류로는 서울시향과 조선국립관현악단의 합동 공연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서울·평양 아트 비엔날레'를 추진하고, 두 도시의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북한과 얼굴을 맞대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교류사업 전초기지로 거듭난다. 이재명 당선인은 평화 경기 조성을 위해 경기 북부에 통일경제특구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남북 교류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환경개선을 위한 남북 협력체계 마련 ▲한강 하구의 평화적 활용방안 마련 ▲경기 서해안 평화관광벨트 조성 지원 ▲문화예술체육 교류 확대 ▲남북교류협력기금 증액으로 도민중심 남북교류 지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비와 남북교류 민간협력체계 구축 등을 공약했다.

남북으로 나뉜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나선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설악산과 금강산, 동해안권에 이르는 관광벨트를 조성할 방침이다.

최 당선인은 강원선 철도 복원과 양양-백두산, 양양-원산 항공노선 취항을 약속했다. 속초·목호-원산·나진 구간 백두산 크루즈 항로 개척도 공약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입장에 이어, 2021년 동계아시아대회는 남북 공동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당선인은 인천·해주·개성을 연계한 '남북 공동경제자유

구역'을 추진한다.

인천 강화 교통에는 평화산단을 조성하고, 기술자본집약산업과 금융서비스를 담당한다. 개성은 노동집약산업과 중소기업, 부품제조 중심 지역으로 만들 계획이다. 패주는 대외경제특구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춘 당선인은 북한과의 교류로 인천을 대외진출의 전략적 국제관문으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놴다. 영종-신도-강화를 잇는 서해평화연도교를 추진하고, 인천-남포 항로 등을 개설해 땅과 바닷길을 뚫는다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은 하늘길을 펴기 위해 인천공항과 평양의 순안공항을 잇고, 백두산·금강산 관광을 위한 삼지연·원산공항길 개설도 약속했다.

남북공동어로구역도 조성도 추진된다. 앞서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으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고 합의했다.

/이범종기자 joker@metroseoul.co.kr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1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제7 투표소에서 진영문화센터에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극동늘푸른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상계1동 제7투표소에서 부인 김미경 교수, 딸 설희 씨와 함께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구치소에서 '한 표' 행사... 박근혜는 기권

곳곳 투표 표정

권양숙 여사, 사저 근처 투표소 방문 안철수 후보, 부인·딸과 함께 투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미리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투표를 하지 않았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거소투표를 해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소 투표란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중대한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된 경우, 한정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등이 대상자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현재 1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투표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을 비롯한 주요 참모진들과 사전투표를 한 바 있다. 이는 전국단위 선거에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대로 낮아 대통령이 직접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당시 청와대의 설명이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는 이날 오전 8시경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에서 조금 떨어진 진영문화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수행원들과 투표소에 나온 권 여사는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기 전 사진기자들의 요청에 잠시 포즈를 취했다.

권 여사는 투표를 마치고 나서 투표 중 사자들에게 "수고하십니다"라며 인사를 하곤 바로 차에 올랐다.

취재진이 최근 상황이 급변한 것 등에 대한 소감을 요청했지만 미소만 짓고 응하진 않았다.

광역 단체장 후보자들도 투표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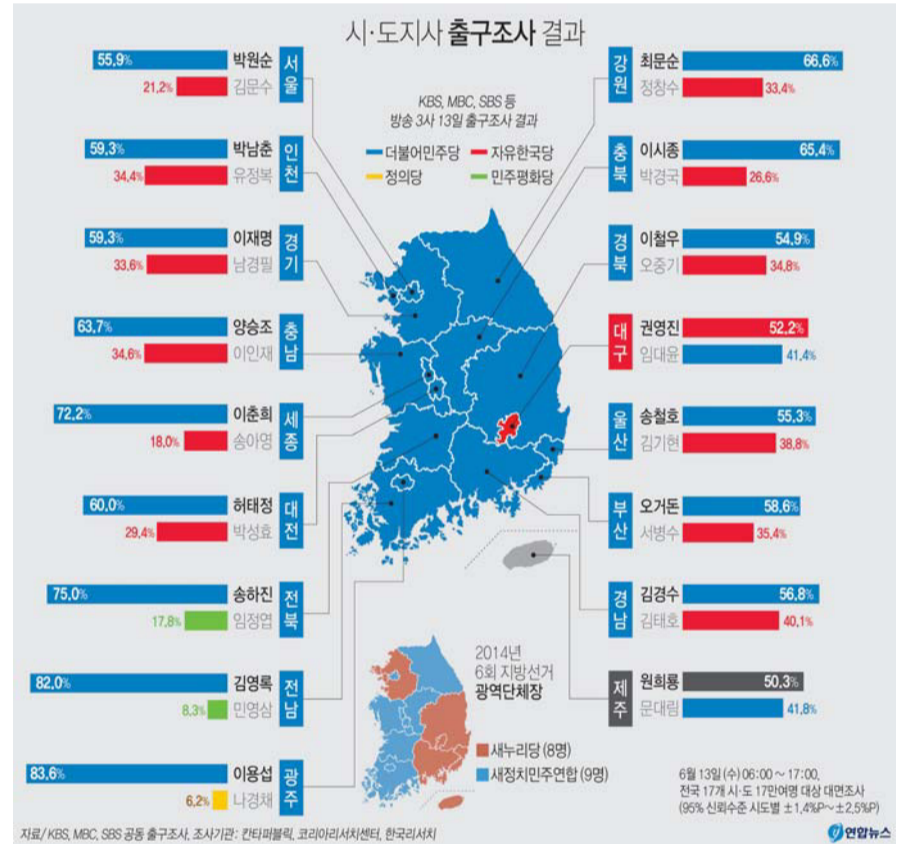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노원구 상계동 극동늘푸른아파트 경로당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부인 김미경 교수, 딸 설희 씨와 함께 투표했다.

안 후보는 투표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어제 회담은 기대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점들이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을 보면서 아주 걱정스러운 마음이 커졌다"면서 "북한이 지난 1990년대부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해왔던 주장과 (어제 회담 결과가)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한미군사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지난 8일 사전투표를 했다.

박 후보는 당일 '보수 텃밭'인 강남에서 민주당 구청장과 시의원을 각각 배출하겠다고 부인 강남희 여사와 함께 강남구 세곡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도 아내 설난영씨와 지난 8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장에서 투표를 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더민주 10곳·자유한국 1곳 승리?

국회의원 재보선 출구조사

12곳 진행... 충북 제천·단양 경합 민주당, 11곳 승리때 국회 130석 확보

지상과 방송 3사가 6·13 지방선거와 같이 전국 12곳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재보선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0곳에서, 자유한국당이 1곳에서 각각 이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 제천·단양의 경우 경합 지역으로 분류됐다.

KBS, MBC, SBS 등 지상과 방송 3사는 13일 오후 6시 투표 종료와 함께 이 같은 출구조사 결과를 일제히 보도했다.

민주당 후보가 다른 당 후보들을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된 지역은 ▲서울 송파을 최재성(57.2%) ▲서울 노원병 김성환(60.9%) ▲부산 해운대를 윤준호(54.4%) ▲인천 남동갑 맹성규(65.9%) ▲경남 김해을 김정호(68.5%) ▲울산 북구

이상현(52.2%) ▲충남 천안갑 이규희(56.8%) ▲충남 천안병 윤일규(65.9%) ▲광주 서구갑 송갑석(85.1%) 후보 ▲전남 영암·무안·신안 서삼석(72.4%) 등이다.

경북 김천의 경우 한국당 송연석 후보가 55.1%의 지지를 받아 승리가 예상된다.

충북 제천·단양의 경우 민주당 이후삼 후보가 47.6%, 한국당 엄태영 후보가 45.7% 오차범위 내 박빙으로,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민주당이 제천·단양에서도 이길 경우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에 후보를 낸 전 지역에서 승리하게 된다. 민주당은 경북 김천을 제외한 총 11곳 재보선 지역에 후보를 냈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은 119석으로, 이번엔 11곳에서 승리할 경우 경우 130석으로 원내 몸집을 불리게 된다. 반면 한국당은 현재 112석에서 1석만 추가하게 돼 두 당간 격차가 이전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범종 기자

서울·경기·인천 주요공약 “이젠 경제야” 박원순 ‘서울페이’ 이재명 ‘지역화폐’ 박남춘 ‘맞춤투자’

박원순



◆서울페이
QR코드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플랫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이후 주택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올랐을 때 일정부담금을 납부하게 해 사회적 약자나 저개발 지역 발전을 도모

이재명



◆지역화폐 유통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통일경제특구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경의선과 경원선을 복구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경제, 산업 물류를 중심으로 한 벨트를 조성

박남춘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시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지구별 맞춤투자

◆남북공동 자유구역
서해평화 협력청을 설치하고 송도에 유엔사무국을 유치해 인천에서 개성을 연결하는 구역 조성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반도의 평화 기대감은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먹고사니즘’. 13일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됐다. 과연 지자체장들은 우리의 먹고사니즘을 해결해 줄 수 있을 지 서울·경기·인천 지자체장의 주요 경제 공약을 짚어봤다.

◆ 서울시장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의 주요 경제 공약은 ‘서울페이’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서울페이는 QR코드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플랫폼이다. 중간단계에 있는 카드사를 제외해 소비자와 자영업자를 직접 연결시켜 결제 과정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매출 대비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에 고심에 빠졌던 영세 자영업자들은 수수료를 0%대로 낮춘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큰 호응을 하고 있다.

시스템은 물론 구입시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고객 계좌에서 사업자의 계좌로 현금이 이체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가능

성이 높다.

또 박 시장은 서울페이를 통해 청년수당과 출산·육아 지원금 등 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결제에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공약에도 시선이 간다. 그의 부동산 공약은 도시재생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당선인은 환수제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을 환경정비기금으로 책정하고 사회적 약자나 저개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는 현 정부의 재건축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이 동조하면서도 서울 시내 집값 격차를 해소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산이다.

박 당선인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 균형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광역 중심을 일자리, 혁신 거점

으로 개발·육성한다고 공약했다. 도심 전 통사업 집적지구의 복합제조와 유통단지 정비도 공약에 포함됐다.

◆경기지사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주요 경제 공약은 ‘지역화폐 유통’과 ‘통일경제특구·DMZ평화관광지구 조성’이다.

지역화폐는 앞서 이 당선인이 경기도 성남에서 도입했던 정책으로, 자원의 외부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당선인은 성남에서 실천한 성공적 모델을 바탕으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경기도 전역에 발행해 밀바다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이 당선인은 오는 2019년까지 관련 조례 제정과 핀테크 기반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2022년 지역화폐가 통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변의 대형중

합쇼핑몰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던 전통시장과 동네시장 상인들은 상권의 경쟁력을 높여겠다는 이 당선인의 계획에 안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이 당선인은 통일경제특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기북부지역을 한반도 경제 교류의 핵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육성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이 당선인은 경의선과 경원선을 복구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경제, 산업 물류를 중심으로 한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DMZ내 생태평화 관광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번 통일 경제특구와 DMZ평화관광지구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발맞추고 동시에 남부보다 개발이 뒤떨어진 경기북부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균형발전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장 박남춘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주요 경제 공약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시대’와 ‘남북공동 자유구역’ 조성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시대’ 공약은 인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마련한 공약으로 시장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신설하고 투자지구별 맞춤투자를 통해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지속적인 경제수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박 당선인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발맞추어 남북공동자유구역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서해평화 협력청을 설치하고 송도에 유엔사무국을 유치해 인천에서 개성을 연결하는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 등에서 제시한 제안들을 대부분 공약에 담겨있어 인천주민들의 기대감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유재희·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조희연



이재정



도성훈



서울·경기·인천 ‘진보’ 압승 조희연·이재정·도성훈 당선

‘교육 소통령’을 뽑은 제7회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현직·진보 성향 후보들이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은 가운데 정부 여당의 높은 지지율, 한반도 해빙 무드, 경쟁 후보들의 낮은 인지도까지 겹쳐 진보 성향 교육감이 크게 선전했다는 분석이다.

13일 오후 6시 기준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17곳 시·도교육감 중 14곳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통적으로 ‘깜깜이 선거’ 양상을 보이는 교육감 선거에서 현역 교육감 프리미엄 효과와 정부 여당의 높은 지지율이 진보성향 교육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현직 교육감 12명 중 진보 성향 후보 11명은 모두 2위 후보를 따돌렸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조희연(47.2%), 경기 이재정(40.4%)이, 현직이 없는 인천에서는 도성훈 후보(43.7%) 등 진보 성향 후보가 크게 앞섰다. 강원에서는 진보 성향 민병희(55.0%) 후보가 신경호(45.0%)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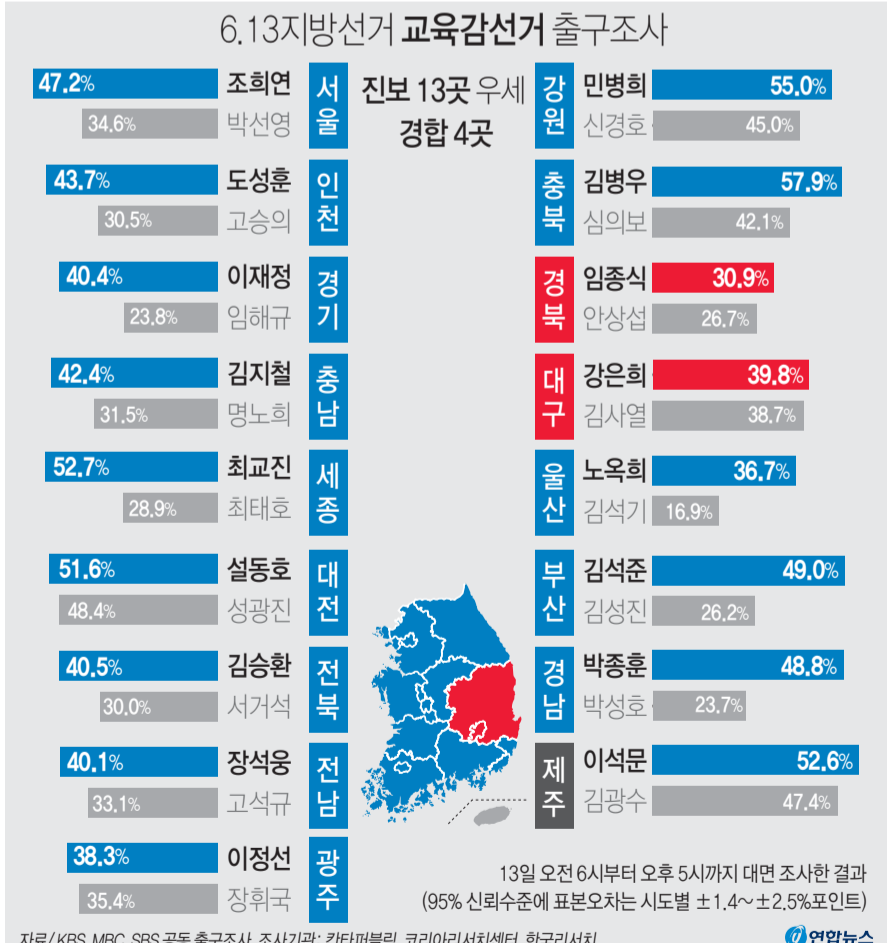
충청권에서는 3곳 모두 진보 성향 교육감 선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전에서는 보수 성향 현직 설동호(51.6%) 후보와 진보 성향 영광진(48.4%) 후보가 접전을 벌인다. 나머지 세종 최교진(52.7%), 충남 김지철(42.4%) 후보 등 현

현역 교육감 프리미엄 효과 특출
대구, 진보·보수 후보간 초 접전
경북만 보수성향 후보 당선 유력

직 진보 교육감 당선이 유력하다.

호남에서는 전북 현직 진보 성향 김승환(40.5%)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현직이 없이 치러진 전남 역시 진보 장석웅(40.1%) 후보가 예측 1위로 나타났다. 광주에는 현직 장휘국(35.4%) 후보와 이정선(38.3%) 후보 등 진보 성향 후보끼리 초접전을 벌여 호남 전역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승리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경상권에서는 현직인 경남 박종훈(48.8%), 부산 김석준(49.0%) 후보 등 진보 성향 현직이 크게 앞섰다. 지난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됐다가 현직 없이 치러진 울산에서는 보수 성향 노옥희(36.7%) 후보가 지역 첫 진보 성향 후보로



유력하다. 대구는 진보·보수 성향 후보간 초접전 양상으로 첫 진보 성향 교육감 탄생도 가능하다. 대구 보수 성향 강은희(39.8%) 후보가 중도진보 성향 김시열(38.7%)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경북은 보수 성향 임종식(30.9%) 후보와 안상섭(26.7%) 후보가 1,2위를 다투고 있어 보수 성향 후보 당선이 유력하다.

제주에서는 현직 진보 성향 이석문

(52.6%) 후보가 김광수(47.4%)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이번 무관심을 받고 있고, 선거과정에서 선거승리 내지 이기는 선거공약으로 매몰돼있다”며 “정작 자질이나 정책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당선자는 임기 시작부터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hys@

alton
DO THE BEST, BE THE STYLE

www.altonsports.com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전기자전거
Ealton



E-ALTON INNOZEN

자전거 전용 도로 진입 가능 (PAS 전용모델에 한함)

- 삼성 SDI 리튬 이온 배터리 3-4 시간 완충
- 완충 시 60km 주행 가능
- 전국 A/S망 구축



‘막내린 흥 체제’... 무너진 보수, 언제 봄 올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대표 전격 사퇴

자유한국당, 지도부 교체 불가피
친이·친박 2선 후퇴 이어질 수도
새로운 인물로 당 재건에 힘 쓸 듯
보수 대안으로 바른미래당 거론도
야권 전체 정계개편 이뤄져야 가능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홍준표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13일 치러진 6월 지방선거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무너진 보수진영에 봄은 오게 될 지, 선거 이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퇴장할 경우 차기 대표는 누가 되고, 정계개편 방향은 어떠한 지에 대한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70%에 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와 50% 정도인 여당 지지율로 인해 그동안 보수진영이 ‘무너졌다’는 분석이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 많았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보수진영에 ‘봄’이 올 수도, 엄중한 ‘한파’가 몰아칠 수도 있다. 6·13 지방선거 결과는 중요한 분기점이며 이후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각 정당 지도부 교체, 소속 국회의원의 합집산 등 정국을 요동치게 할 대형 변수들이 예상된다.

선거전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 결과로

보면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며, 이 경우 야당이 선거 후폭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당에서 그동안 특유의 입담과 카리스마를 앞세웠던 ‘홍준표 체제’는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홍 대표가 “광역단체장 6곳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선거 참패 시 지도부 교체가 불가피하다. 이미 한국당 내에서는 선거 패배 위 기감에 홍 대표의 2선 후퇴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그동안 친박 진영을 다독여 ‘막말’과 문자까지 감수하며 대어 강경투쟁을 이끌

어온 홍 대표의 퇴진은 한국당 기존 지도부 총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 현 지도부를 포함한 ‘친이(친이명박)’와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이 일제히 2선으로 물러나고, 참신한 이미지의 인물이 새롭게 당권을 잡아 당을 리모델링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정욱 전 국회의원 등이 꼽힌다.

재보선 결과까지 여당의 압승으로 나온다면 이미 국회법상 시한을 넘긴 국회의장 선출 논의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6월 1일 국회의장 선

출을 위한 분회의’를 제안했다. 그렇지만 한국당이 전체 원 구성 협상을 마친 후 분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논리로 응하지 않았다.

12곳의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 따라 의석 분포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원 구성 협상도 선거 이후에 하겠다는 논리다. 118석의 민주당과 113석의 민주당 의석 수 차이가 5석이고 선거 결과에 따라 다른 야당 국회의원이 탈당해 들어오는 정계개편이 일어나면 관행적으로 의장을 내오던 원내 1당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1당이 공고해지면 한국당도 상식적인 선에서 원 구성 협상일정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 예상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당은 바른미래당이다. 보수진영에서 나온 바른정당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이 통합한 바른미래당은 이번 선거 이후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바른정당 의원들이 한국당에, 국민의당 의원들이 민주당에 입당을 타진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만일 민주당과 한국당이 원내 1당을 두고 격렬한 경쟁을 벌일 경우 바른정당은 순식간에 군소정당이 되거나 공중분해될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반사이익으로 바른미래당이 보수 대안 정당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야

권 전체의 정계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

선거 이후 여당은 예정된 전당대회를 통해 차기 지도부 경쟁에 들어가게 된다. 추미애 대표 체제가 오는 8월에 끝나며 차기 지도부가 2년 뒤인 2020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민주당 당권 예비주자들은 이미 지방선거 지원 유세 과정에서 선거운동과 동시에 당권을 노린 행보를 개시했다. 예상되는 당권주자는 ▲이종걸(5선) ▲박영선(4선) ▲우원식(3선) ▲전해철(재선) 등이 있다. 또한 관록의 이해찬(7선) 의원도 여러 시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직책을 겸임하며 당권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중이다.

한국당의 경우, 바른미래당 내부의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이 한국당에 대거 입당하게 되면 한국당은 다시 유일한 보수 정당으로 양당 체제를 굳힐 수 있다.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면 정국 주도권은 한국당이 차지하게 된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패배가 반드시 홍 대표의 완전한 퇴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도 있다. 일단 사퇴한 홍 대표가 다시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당구상 금지된 것은 아니며,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다면 자체가 재신임을 뜻하는 만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연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승자의 환호



최문순 강원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가운데)가 1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선거사무실에서 지지자들과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은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 오른쪽은 최 후보의 아내 이순우씨.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뉴시스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자 /연합뉴스

박·이·김, 잠룡 3인으로 향하는 시선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민주당 대권 경쟁구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을 이을 차기 민주당 대선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의혹으로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은 가운데 안 전 지사와 함께 민주당의 잠룡으로 평가됐던 인물들이 모두 선거에 승리하면서 향후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안 전 지사에 이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는 ‘욕설 논란’, ‘여배우 스캔들’ 등 여러 악재에도 경기지사에 당선되면서 차기 대권 주자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보수정당에서 독식해온 경기도를 탈환했다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스캔들로 경기지사의 당락이 바뀌지는 않았을지라도 차기 대선 주자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 초 안 전 지사를 포함해 정봉주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을 잃은 이른바 ‘미투’ 트라우마로 인해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한 당원은 아니지만 진보계열 언론

박원순 ‘3선 연임’ 당내 입지 다져야
김경수 ‘드루킹 극복’ 친문 핵심인물
이재명 악재에도 압승 vs 타격 입어

인으로 분류되는 김여준·주진우·정봉주 등이 이 당선자 스캔들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증언이 흘러나오면서 진보진영 전체의 스캔들로 비화될 여지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이 스캔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에 따라 이 지사의 대권 후보로의 입지도 크게 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에 이어 대통령 당선의 교두보 자리로 인식되는 서울시장직 3선 연임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민주당 내 유력한 대선 잠룡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위해 기여했다고 자부하는 박 당선자는 일단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잘 이뤄지지 못했던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복원해 서울시정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박원순 표 정책들에 대한 여론의 평가 추이를 살펴 보면서 향후 대권 도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 그 과정

에서 ‘친문’ 주류 세력과 거리가 먼 ‘비문’이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당내 입지를 굳히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 내 유력한 대선후보로 부각된 인물은 단연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자라는 목소리도 높다. 김 당선자는 출마를 결심하기 전 ‘드루킹 사건’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였지만 오히려 정면돌파를 선택하면서 민심의 선택을 받게 됐다. 특히 김 당선자는 친문의 핵심으로서 주요 광역단체장까지 맡게 돼 향후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선거기간 동안 “대통령과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힘있는 여당 도지사가 경남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문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드루킹 특검이라는 과제를 넘어서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사직을 수행하는 와중에 특검 조사를 받게 돼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사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아직 유력 대선후보로 평가받는 것은 이르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송철호 울산시장 13일 오후 울산시 남구 신정동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던 송 후보가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자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오거돈 부산시장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3일 부산 부산진구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부산시장 관계자와 지지자 등이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北 인프라투자 150조 소요... 정부-금융사 2:8 재원조달

남북 경제협력추진 E-로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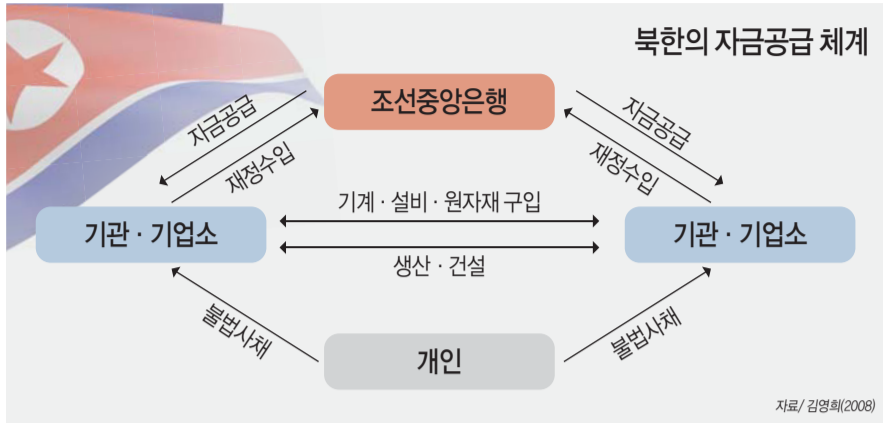
금융의 역할과 과제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확대 시급
SPC 설립으로 사업설계 담당해야
'낙후 시스템' 지원·협력도 필요

남·북한 경제를 조화롭게 통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반도 금융의 맥을 잇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 협력 사업은 공공성이 높고 리스크가 커 시장이 본래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민간 영역에서 수행하기 힘들다. 그만큼 공공성이 담보된 정책금융기관이 앞장서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고 시장을 조성하는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민간 금융이 빠진다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북한 진출 기업들의 길잡이·안전관 역할을 해주는 '가교금융'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낸다.

과거 서독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과의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해 시장경제를 전파하고, 동독 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 원활한 통합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서독의 대 동독 투자를 매개로 한 경험 사업은 동독 지역 산업 경쟁력을 향



상하는 한편 산업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도 크게 기여했다.

◆ 통일 독일의 교훈, 금융기관 재원 조달 80%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의 철도, 도로, 전력 등 인프라 수요는 총 1400억달러(150조원)에 달한다. 현재 북한의 도로 포장률은 10% 미만, 간선도로 대부분이 왕복 2차선 이하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정책금융기관들이 시급하게 확충해야 할 금융 분야로는 ▲북한 진출 기업 자금 지원 ▲북한 인프라 건설 사업 발굴·건설 ▲북한 주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 ▲주거·상하수도 등 민생 개선 개발금융 지원 등을 꼽는다.

민간 금융기관들의 역할도 강조된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핵 문제가 일단락돼 대화국면에 접어들 경우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포함한 교류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며 "금융부문이 선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러시아가 가스관 건설사업, 경원선 복원 사업, 항만 현대화 사업 등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사업은 대부분 인프라 프로젝트라 대규모 재원조달이 필요하므로 정부가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시공사와 금융사가 협력해 자본을 유치하는 민관협력사업(PPP)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선 지정학적 위험을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해상에 건설하는) 부유식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설비나 저장 플랜트를 이용하면 사

업 중단 시에도 시설을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경험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려면 단순 대출·보증에 그치지 말고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사업의 전반적인 설계 등을 담당해야 한다"며 "정부도 금융사의 핵심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협력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독일은 통일 이후 재원의 21%만을 정부 예산에 의존했으며 금융기관의 재원 조달 비중이 80%에 달했다.

◆ 낙후된 금융 시스템 교류에도 적극 나서야

북한의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교류와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북한에서는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원하지 못함에 따라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 심화하고 사금융이 퍼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 비춰볼 때 이원적 시스템으로 개혁할 수 있는 북한의 낙후된 시스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쿠바의 경우 이중경제로 7~8%의 고성장을 이룬 바 있다. 국가가 달러 사용을 권장하다가 자체 통화와 연계해 본인, 가족, 친척 및 이웃 등으로 시장을 꾸준히 제도화해 최종적으로 미국과 수교하는 성장한 것.

또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비용 조달을

위해 해외 재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통일 이전 시기에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북한개발지원그룹 설립, 양자간 개발금융기관(DFI)을 통한 민관협력 활용 등이 거론된다.

박해식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외국자본은 북한과 같은 폐쇄적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국가에 단독으로 투자하는 것을 주저한다"면서 "북한이 우리나라의 지원 아래 국제금융기구에 가입, 민간자금과의 협조 용자, 보증 등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통일 이전에 자국의 경제회생을 위한 외국 자본 유치가 훨씬 용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희 KDB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연구원은 "현재 남북협력사업 필요자금은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대북투자사업과 상업적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은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하고 민간금융이 참여하는 '정책성'과 '상업성'이 결합된 기금, 펀드, 온렌딩대출 등 대안적 금융수단이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달라진 남북기류에 은행권과 통일금융 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련 금융상품 개발에 들어갔다. 남북협력이 재가동될 경우 개선공급지구관리위원회와 세부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벤트성 금융상품도 판매할 방침이다. /김민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성공적 북미회담에 '평화정착' 성큼 文의 '중재자' 역할 빛났다

'북핵문제 해결' 대선때부터 내세워
회담의 공 김정은·트럼프에게 돌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가진 역사적인 정상회담 장면을 그 누구보다도 가슴 벅차고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본 사람이 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TV 화면에 등장해 첫 악수를 나눌 땐 정한지 코끝을 만지작거리기도 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북미 정상이 분단 후 65년만에 처음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완벽한 중재자' 역할을 한 주인공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북미정상회담의 공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저녁에 낸 '6.12 북미정상회담 입장문'에서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업을 마침내 이뤄낸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당일 밤 8시20분께는 20분 가량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큰 토대를 놓았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입장문에서 김 위원장에게는 "세계를 향해 과감하게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순간의 주역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성공을 누구

보다 기다린 이는 문 대통령 자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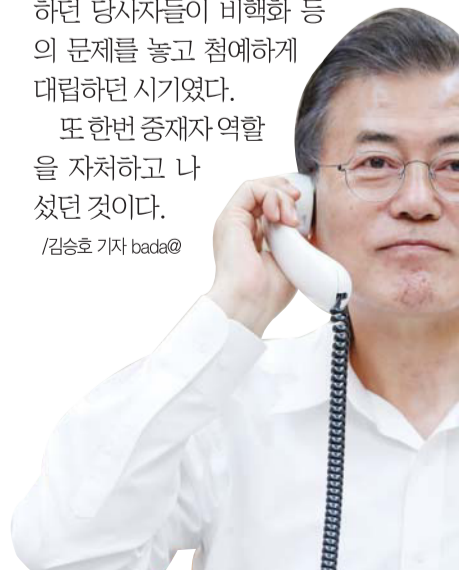
'북한의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은 대선 후보자 시절부터 내세운 공약이었다. 대통령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하면서는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취임 2년째가 된 올해 초엔 신년사를 통해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남측으로 방문한 김 위원장의 특사단과 함께 단일팀 경기를 함께 응원하고 청와대 초청과 예술단 공연까지 관람하는 등 수차례 만나며 교감을 한 것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때문이었다.

또 지난 4월27일에는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정상간 남북 대화의 큰 물꼬도 댔다. 특히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 달도 안 된 지난 5월26일에는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러 판문점으로 '암행'을 나가기도 했다. 이 때는 북미회담을 추진하던 당사자들이 비핵화 등의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였다.

또 한번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던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자본 투입되나... 北 '개혁·개방' 신호탄

트럼프 "핵 위협 없을 때 제재 풀 것" 자본유입대 '비핵화·체제보장' 가능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을 통한 북한 개혁·개방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비핵화된 북한에 미국 자본과 인력이 투입될 경우, 양측 모두 체제보장과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요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말했다"며 "지금까지는 말뿐이었지만, 새로운 팀이 구성됐다. 김 위원장이 (안전한비핵화를) 실제로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북한의 비핵화로 더 이상 위협이 없을 때 대북 제재를 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전 동영상을 통해 '북한의 변영'을 강조했다. 북한과의 합의문에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을 실었다.

학계에선 북한 비핵화로 평양에 미국 자본과 인력이 들어갈 경우, 확실한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미국의 경제 지원 사이에서, 미국이 어떻게 북한체제를 보장할지가 가장 큰 이슈"라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미국의 민간자본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미국 자본과 국민들이 평양에서 활보하게 되면, 북한 체제 보장과 CVID를 모두 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합의문에 CVID가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은 북미 대화의 시작"이라며 "김 위원장은 혼자 결정할 수 있지만, 미국은 국내 정치권의 합의가 있어야 조약 체결이 되기 때문에, (북한에

제공할 CVID의 대가에 대한) 판단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상호 불신을 하루아침에 해소할 수는 없다"며 "두 정상이 대면하고 서로의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이 어찌보면 양측이 상대를 신뢰할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회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낙관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핵 문제 부분에 대한 원칙이라도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혁개방은)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상황 아래서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의는 두 정상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는 수준"이라며 "이번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만들어질 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범중 기자 joker@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Q 르포 | '농심 너구리' 다시마, 완도 금일도 경매현장 가다

“쫄깃쫄깃~ 오동통통~” 너구리 인기비결은 청정해역 다시마

누적매출 1.9조·누적판매 54억개
깊은 해물맛 국물의 핵심 '다시마'
협력업체와 36년째 관계 이어가

“쫄깃쫄깃~ 오동통통~” 귀에 익은 CM 송의 주인공은 농심 너구리다. 올해 출시 36주년을 맞은 국내 최초의 우동라면이다. 특유의 해물맛으로 라면시장을 이끌고 있다. 현재까지 너구리 누적매출은 1조9000억원이며, 누적판매량은 54억개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너구리를 100개 이상 먹은 셈이다.

농심 최장수 브랜드인 너구리의 인기 비결은 면발과 국물이다. 특히 전남 완도군 금일도 일대에서 생산되는 '다시마'가 너구리의 국물맛을 완성하는 핵심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금일도를 찾았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약 2시간을 달려 광주송정역에 도착했고, 이어 차를 이용해 2시간을 달려 전남 완도군 당목항에 도착했다. 여기서 배를 타고 20여분 더 들어가야만 도착할 수 있었다.

오전 10시쯤 도착한 완도금일수협 다시마 위판장에서는 경매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너구리 맛의 비결 '금일도 다시마'

금일도는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금일도 다시마는 완도 내에서도 품질이 좋기로 정평



지난 8일 완도금일수협 다시마 위판장에서 중매인들이 다시마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왼쪽)과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농심

이나있다. 이는 금일도의 지리적 특성 때문이다. 주변이 섬으로 둘러싸여 큰 파도가 적고, 일조량이 풍부하다. 최근 진도, 여수 주변으로 생산지가 넓어졌지만, 금일도 다시마를 제일로 취급하고 있다.

너구리에서 완도 금일도산 다시마를 빼놓을 수 없다. 깊은 해물맛을 내기 위해 넣은 다시마가 36년이 지난 지금, 너구리의 트레이드마크로 자리잡았다.

오전 완도금일수협 다시마 위판장은 경매사와 중매인들로 북적거렸다. 약 200m 길이의 부둣가를 다시마가 가득 메우고 있었다. 파란 조끼를 입은 중매인들은 팔레트 위에 놓여진 다시마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다시마 경매는 5월부터 6월 사이에 진행된다. 장마가 오기 전에 경매를 마무리하는 데 다시마가 비에 젖으면 상품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날 경매에 참여한 한 중매인은 “좋은 다시마는 만졌을때 쫄깃하고, 두께가 적당하며, 이물이 없어야 한다”며 “색은 검정색을 띠는 것이 상품”이라고 말했다.

◆너구리 판매는 다시마 소비

너구리는 82년 출시 두 달 만에 20억원을 상회하는 기록을 세웠다. 1983년에는 150억원을 돌파하며 국내 우동라면 트렌드를 처음 열었다. 현재 너구리는 연간 10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라면업체의 파워브랜드로 성장했다.

너구리가 라면시장에서 오랜 기간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우동과 얼큰한 국물의 조화다. 소비자 입맛에 맞는 얼큰한 해물우동 국물과 두꺼운 면발이 더해져 일반 라면과 차별화를 뒀다. 기존 라면에서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맛과 면으로 승부한 것이다.

너구리 판매는 곧 금일도 다시마 소비로 이어진다. 너구리 한 봉지에는 다시마 1개가 들어있다. 이 다시마 조각을 너구리 누적판매량만큼 바닥에 펼친다고 가정하면 8.6km 정도의 넓이가 나온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다시마를 일렬로 정렬했을 때 그 길이가 지구 둘레의 6배 이상에 달한다.

농심의 금일도 다시마 사랑은 완도군 어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상생경영의 사례로도 꼽힌다. 완도 금일읍에서 다시마 양식을 하는 어가(漁家)는 대략 700곳이다. 양식 어민들은 매년 5월 말에서 7월초까지 다시마를 채취해 경매장에 내놓는다. 농심은 협력업체를 통해

경매에 참여, 다시마 품질과 가격을 확인하고 최상의 다시마를 구매한다.

농심 관계자는 “너구리 맛의 핵심인 다시마는 품질이 뛰어난 완도 금일도산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 같은 농심의 노력이 완도 어가에 직간접적인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승의 완도금일수협 상무는 “너구리는 금일도 다시마 어가들의 판로걱정을 매년 털어주는 효자상품”이라며 “너구리 판매가 다시마 소비로 이어지고, 결국 완도 어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는 어촌경제의 안정과 활력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김 상무는 “과거 비닐이나 차광막만 깔고 다시마를 말리는 경우가 있었다”며 “지금은 논이었던 곳이 자갈을 깔고 다시마 건조장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다시마는 금일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36년간 이어진 협력

금일도 다시마와 농심의 관계는 36년간 지속되고 있다.

농심 연구팀이 너구리 개발하는 과정에서 진한 해물맛을 내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하던 중, 실제 가정에서 국요리를 할 때 다시마를 활용해 육수를 낸다는 점에 착안, 곧바로 전국 다시마 산지로 향했다.

농심은 국내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고 품질이 좋은 금일도 다시마로 최종 선택했다. 이후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신상석 대표와 농심은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신 대표는 “36년째 농심에 다시마를 납품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해외 수출도 했지만 농심에 전량 납품하기로 하면서 중단했다. 금일도 다시마가 제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최상품들만을 구매해 보낸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심으로 매년 평균 400t의 금일도 다시마를 보낸다”며 “36년 누적구매량으로 계산하면 1만4000여t에 달한다”고 말했다. 농심이 한 해 구매하는 다시마는 국내 식품업계 최대 규모다. 이는 금일도 건다시마 생산량의 15%에 해당한다.

신 대표가 구매한 다시마는 경남 김해의 가공공장으로 옮겨진다. 그곳에서 최대 2m에 달하는 다시마는 쫄기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거하고 세척, 건조에 들어간다. 너구리에 사용되는 다시마는 다시마 쫄기 부분으로 실제 수율은 43%~45%에 불과하다. 이후 이물 및 검속 검사 등 과정을 거친다. 이후 농심공장으로 이동해 너구리에 들어간다. 금일도 다시마는 너구리 외에도 볶음너구리, 새우탕 등에도 사용된다.

/전남 완도=박인용 기자 parku7854@metroseoul.co.kr



‘한중 산업단지’ 조성 위한 실질적 협력 시동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우리나라가 중국과 ‘한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에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중국 상무부와 ‘제2차 한중산단 차관급 협의회’를 중국 영성에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측은 김창규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중국은 가오 옌(高燕) 상무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차관급 협의회는 한중 경제협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한중산단 조성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채널로,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한중 투자협력기금 실행방안 마련 ▲장기 협력과제 발굴 공동연구 추진 등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양국기업이 새만금을 공동 개발하는 시범사업으로서 화장품·식품 등 고급소비재와 로봇·헬스케어 등 신산

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 2015년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한중 투자협력기금의 조성·운영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공동으로 실무그룹(W/G)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중산단의 장기 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양국 연구기관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이의 일환으로 정부·기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한중산단 협력교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추후 국장급 실무회의는 내년 3월 서울에서, 차관급 협의회는 내년 6월 새만금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내년 국장급·차관급 회의시 양국은 공동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는 등 한중산단을 실질적인 양국 경제협력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은행, 대출규제에도 2분기 실적 ‘好好’

구조조정 마무리·대손비용 유지 등 사상 최고 실적 경신 가능성도 보여

은행들이 대출규제에도 호실적 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강도높은 규제에도 대출은 꾸준히 늘었고, 금리 상승세에 이자 이익은 늘었다. 반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대손비용은 낮게 유지됐고, 오히려 총당금 환입이 기대되는 곳들도 있다.

13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KEB하나금융,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2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3조 325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3조 2968억원에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려와 달리 대출은 늘고, 금리 상승에 순이자마진(NIM)도 개선됐다.

〈은행 2분기 순이익 추정치〉 (단위: 억원)

구분	순이익
KB금융	9268
신한금융	8751
KEB하나	6140
우리은행	5098
IBK기업	3998

/자료=에프앤가이드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은행의 대출순증액은 4월 11조6000억원, 5월 10조2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삼성증권 김재우 연구원은 “지난달까지 은행 대출은 전분기 대비 1.4% 증가해 이미 1분기 중 대출성장률 1.6%에 근접했다”며 “2분기 대출성장률은 1분기를 웃돌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과 가계일반대출 중심으로 성장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이슈는 사그라들었고, 지난해까지 마무리한 대규모의 명예퇴직

으로 비용은 낮게 유지됐다.

현대차투자증권 김진상 연구원은 “분기 중 이렇다 할 이벤트가 거의 없어 대손비용은 여전히 낮고, 일부 은행의 총당금 환입도 기대된다”며 “2분기 실적은 1분기에 이어 수익과 비용 모두 개선되면서 향상된 경상적 이익력을 재차 확인하는 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분기에도 리딩뱅크자리는 KB금융이 예약해 뒀다. KB금융의 2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9268억원으로 처음으로 1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9000억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 매각에 따른 총당금 환입이 반영된다면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신한지주의 2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8751억원이다. 역시 1분기에 이어 8000억원 후반대의 호실적이다. 이밖에 KEB하나 6140억원, 우리은행 5098억원, 기업은행 3998억원으로 집계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www.myhair.co.kr

김찬월 연구한 특허가발 착용감이 다릅니다.

접착 · 클립 · 테잎 **NO**

특허 KS가발은 가려움 방지, 탈부착 간편합니다.

정수리 밀지않는
특허 결속 고정 가발

특수한 재질 사용하여 통풍이 우수하고 매우 경제적입니다.
(타사가모 고정 가능)

다양한 여성용
신제품 개발

특수한 기술로 뒷부분이 들뜨지 않는 가발!
항암가발 50% 특별할인

김찬월가모 명가명품 기술입니다.



라클라스 부분가모

남녀 부분가모 작품 전시실



국내최초
남녀 부분가모
작품 전시실



30년 기술의 신지식인 김찬월연구가 자랑스런 대한민국 명가명품대상 선정

1995년 10월 3일 MBC 생방송 '아침만들기' 한국 최초 가발관련 방송 출연
2018년 2월 14일 채널A '김형욱의 굿모닝-알고있나요' 출연

- MBC '화제집중' 출연
- SBS '인생대역전' 출연
- SBS '모닝와이드' 출연
- KBS '뉴스투데이' 출연
- KBS '생로병사의 비밀' 출연

- 압구정점 02-545-4800
- 서울역점 02-717-0046
- 서울시청점 02-747-3500
- 대구범어점 053-744-4343
- 대구7호광장점 053-571-6002
- 인천부평점 032-503-5707
- 부산역점 051-467-1300
- 부산서면점 051-802-2882

대표전화 1544-5554



이색 재료에 다양한 토핑... '빙수전쟁' 막을랐다

정통의 맛 고수한 '팥빙수' 인기만점 스테디셀러 메뉴 리뉴얼 출시 잇따라

한낮 최고기온이 20도를 훌쩍 웃도는 더운 날씨로 인해 식음료업체가 빙수 출시를 앞당기고 있다.

이색적인 재료와 다양한 토핑, 화려한 비주얼이 돋보이는 빙수들 가운데 단팥을 얹어 정통의 맛을 고수한 '팥빙수'가 단연 인기가 높다. 팥빙수는 풍부한 양의 콩가루, 팥, 찰떡 등을 곁들여 빙수 기본에 충실한 맛과 고소한 풍미를 즐길 수 있으며, 팥 고유의 단 맛을 느낄 수 있어 여전히 기존 팥빙수를 찾는 소비자들 많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 더위로 빙수의 소비가 높아지면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점이 꾸준한 인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카페 드롭탑은 최근 여름 시그니처 메뉴인 '아이스탑' 빙수 5종을 출시했



드롭탑 '단팥 아이스타'.

다. 아이스타는 지난해부터 이른 봄에 출시되며 일부 매장에서 조기 품절을 일으킨 제품이다. 이번에 선보인 아이스타는 고객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단팥 아이스타'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콩가루와 볶음 현미가 첨가되어 고소한 맛이 특징이며, 오리지널 팥빙수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즐길 수 있는 메뉴다. 아이스타 메뉴 중 베스트셀러로 자리잡았다.

SPC그룹의 파스쿠찌가 리뉴얼 출시한 '레드빈 시리즈'는 그라니파에 팥빙수 요소를 더해 개발한 1인 빙수 메뉴다. 그라니파 레드빈 시리즈는 2011년 출시 이후 매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는 파스쿠찌의 스테디셀러 메뉴로, 이탈리아 정통 디저트인 그라니파에 팥빙수 요소를 더해 개발한 1인 빙수 메뉴다. '썩썩썩 그라니파', '단팥통통 그라니파', '찰인절미 그라니파' 등 모두 3종으로, 모두 얼음과 함께 떡을 갈아 만들어 작은 크기의 떡이 쫄깃하게 씹히는 색다른 식감이 특징이다.

카페 오가다는 여름을 대비해 오가다만의 특색 있는 빙수 메뉴 판매를 시작했다. 카페 오가다의 시그니처 빙수로 불리는 '오곡팥빙수'는 지난 2013년 출시 이후 매년 전체 빙수 판매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부동의 판매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오곡팥빙수는 국내산 콩으로 만든 곡물 가루와 경산 대추를 그대로 말린 대추칩, 호두, 호박씨 등 견과류 토핑이 얹어져 있어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내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베스트 메

뉴다.

공차코리아가 지난해 누적 판매량 베스트 제품이었던 '실크 팥빙수'를 리뉴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우유 얼음에 19가지의 고소한 곡물가루가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하는 제품이다. 특히 곡물 품을 빙수에 얹어 고소함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쫄깃한 타피오카 펄과 알갱이가 살아 있는 국내산 팥을 사용했다.

달콤커피는 독특하고 재밌는 이름의 5가지 메뉴로 구성된 '빙수마찰'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5가지 빙수 메뉴 중 '추억소환단팥'은 팥빙수 그대로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우유 얼음을 갈아 맛이 부드럽고 콩가루와 쫄깃한 썩경단, 단팥을 올려 고소함과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한국피자헛은 패스트캐주얼다이

닝(FCD) 매장 전용 여름 신제품 '스노우 팥빙수'를 판매 중이다. 이 제품은 우유로 만든 빙수에 딸기와 팥, 치즈 토핑이 어우러진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에 들어서면서 빙수를 찾는 고객들이 늘었다"며 "딸기, 망고, 초코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지만 팥빙수를 찾는 고객들이 가장 많다"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공차 '실크 팥빙수' 리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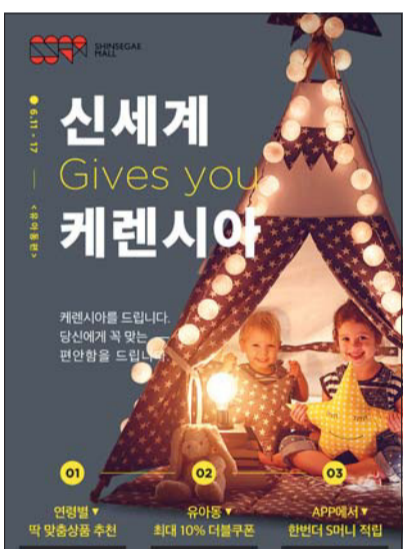
항균·친환경 가구 등 아동용품 매출 '쑥쑥'

신세계몰, 6월 한 달간 행사 진행 아동생활장르 27.5% 신장세 보여

최근 라돈 검출 등 생활 소품들의 유해성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항균 침구, 친환경 가구 등 프리미엄 아동 생활 용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3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아동장르 실적은 올해 1월부터 6월 11일까지 아동장르 전체가 2.1% 신장한 가운데 아동 생활 장르는 이보다 10배가 넘는 27.5%의 신장율을 보였다.

특히 알레르겐 베이비, 미국의 친환경 가구 브랜드 우프 등 프리미엄 아동 생활 제품군은 라돈 검출 파동이 있었던 5월부터 6월 11일까지 79.1% 신장율을 기록하며 친환경 프리미엄 아동 용품에 대한 고객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신세계몰 관계자는 "적은 자녀 수에도 맞벌이 등으로 부모의 경제력은 높아져 '내 아이만큼은 좋은 것으로'라는 인식이 아이들의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까지 확산돼, 먼지 없는 침구, 프리미엄 물티슈 등 아동 생활 장르의 높은 신

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세계몰은 6월 한 달간 '신세계 Gives you 케렌시아' 행사를 열고 최대 50% 할인된 합리적인 가격에 유아동 패션, 완구, 프리미엄 생활용품 등을 엄선하여 선보인다.

뮤라, 까르망, 스토크 등 유아동 브랜드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신세계몰 유아동 바이어가 각 연령대별 추천 상품을 엄선해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상품을 고민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세계몰 김예철 상무는 "우리 아이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트렌드로 아동 생활 장르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바이어들이 엄선한 상품을 선보이는 행사를 기획했다"며 "오는 9월 선보이는 아동 전문관 등, 신세계몰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콘텐츠 확대를 통해 업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이마트, 신선식품 브랜드 'Just Fresh' 첫 선

프리미엄 신선식품으로 돌파구 모색

이마트는 오는 14일 프리미엄 신선식품 브랜드 'Just Fresh'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Just Fresh는 이마트 바이어가 직접 산지와 생산자, 생산시기, 생육법 등을 꼼꼼히 따져 엄선한 상품들로 과일, 채소, 축산, 수산, 건식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간 운영품목은 80여 개에 달할 전망이다.

패키지에는 고객들이 구매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상품들과 차별화한 포인트를 명시했다. 사과와 경우 ▲대표산지 ▲당도 선별 14Brix 내의 ▲색택 90% 이상 ▲크기 당도 꼼꼼히 선별을, 파프리카는 ▲특대와 사이즈 엄선 ▲최첨단 시설 재배로 안전·안심 ▲아삭아삭한 달콤한 맛 등을 표기하는 식이다.

이마트가 프리미엄 신선식품 브랜드를 선보인 이유는 신선식품이 대형마트의 '구원투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편의점과 온라인몰의 공세 속에 지난 해의 경우 오프라인 유통채널 중 유일하게 역신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선식품의 경우 선도 문제로 인해 온라인 채널로의 소비층 이전이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산지발굴이나 바이어와 확보에 있어 오랜 영업노하우를 지닌 대형마트 업계가 비교우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앞으로 이마트는 가성비로 경쟁력을 확보한 신선식품에 이어 품질을 강조한 프리미엄 신선브랜드 Just Fresh를 내세워 차별화를 도모하고, 신선식품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을 기울인다.

민영선 이마트 신선식품 담당 상무는 "오프라인 매장을 갖춘 대형마트가 차별화할 수 있는 무기 중 하나가 선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선식품"이라며 "앞으로 Just Fresh를 전 상품군에 걸쳐 확대해 우수한 신선식품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신개념 식문화 플랫폼 'CJ올리브마켓 IFC몰점' 오픈

CJ제일제당은 'CJ올리브마켓 여의도 IFC몰점'을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점포는 이달 1일 문을 연 CJ제일제당센터 본사에 위치한 국내 최초 HMR 플래그십 스토어 'CJ올리브마켓 쌍림점'에 이은 2호점이다.

연면적 529㎡(160평) 규모의 'CJ올리브마켓 여의도IFC몰점'은 HMR 메뉴를 맛있게 즐기고 쇼핑할 수 있는 신개념 식문화 플랫폼(Simple & Delicious)을 표방하고 있다. 여의도가 직장인 소비자층이 집중된 오피스 상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바쁜 현대인의 소비 트렌드에 맞는 맛 있으면서 간편한 집밥 솔루션을 제공하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에 '올리브 테이크웨이(Takeaway)' 존과 '샐러드 셀렉션(Salad Selection)' 존을 운영한다. '올리브 테이크웨이존'에서는 '비비고'와 '고메' 등 가정간편식을 모티브로 한 도시



CJ제일제당 올리브마켓 IFC몰점. /CJ제일제당

락과 샐러드 메뉴를 구매할 수 있다. 맛과 영양을 챙기면서 시간은 절약하고 싶어 하는 여의도 오피스 상권의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신선한 제철 재료로 만든 포장도시락 메뉴를 강화했다. 자신만의 샐러드를 만들어 포장해 갈 수 있는 '샐러드 셀렉션'에서는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해 야채와 고기, 토핑 종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호점과 동일하게 프리미엄 HMR 레스토랑인 '올리브 델리(Deli)'와 HMR 브랜

드 스토어인 '올리브 그로서리(Grocery)' 2가지 테마공간도 운영한다. '올리브 델리'는 HMR 메뉴의 다양화와 가치 전달에 초점을 맞췄다. 10여명의 전문 셰프들이 CJ제일제당의 HMR 제품들로 만든 '비비고 한식반상', '고메 스테이크 정식' 등 외식 메뉴 20여종을 개발해 선보이고, 2개월마다 새로운 메뉴를 출시할 예정이다.

'CJ올리브마켓 여의도IFC몰점'은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가 방문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으로 보다 대중적인 트렌드 파악을 위한 안테나숍 역할을 맡는다.

손은경 CJ제일제당 식품마케팅본부장(상무)은 "CJ올리브마켓은 단순한 제품 및 식재료 판매를 넘어 '특별한 미식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식문화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 식문화 공간"이라며 "HMR 제품의 본질인 맛과 즐거움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해 여의도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웅 기자



롯데프리미엄 푸드마켓 잠실점에서 직원들이 프로모션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롯데슈퍼, 북미 정상회담 특별 프로모션

'반갑다! 평화야!' 20% 할인판매

롯데슈퍼는 13일부터 17일까지 '반갑다! 평화야!'를 테마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롯데슈퍼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새출발 합의

문 발표를 축하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롯데프리미엄 푸드마켓을 포함한 롯데슈퍼 전 점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인기를 끌었던 평양냉면을 포함해 다양한 가공식품과 냉장생면을 20% 할인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ycu.ac.kr

변함
없는
1등

한양
사이버
대학교

최고 브랜드 대상
국가브랜드대상(7년 연속 수상)

최다 학과, 전공
28개 학부(과)

최대 재학생 규모
학생수 1위, 재적생 16,967명

명문 대학원 진학
대학원 진학 총 2,623명

2018학년도
입학설명회

일시: 1차 6.16(토) 14:00~16:00 | 2차 6.26(화) 19:00~21:00 | 3차 7.25(수) 19:00~21:00
장소: 사이버 2관 3층 (301호, 302호, 303호)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2번 출구 방향

한양사이버대학교
2018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06.01(금) ~ 07.06(금)

공학계열

컴퓨터·정보보호공학부(컴퓨터공학과, 해킹보안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부(전기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기계자동차공학부(기계 제어공학전공, 자동차IT융합공학전공),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디자인계열

디자인학부(공간디자인전공, 뉴미디어디자인전공, 디자인기획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인문사회계열

상담심리학부(상담심리학과, 미술치료학과, 청소년상담학과), 아동학과, 교육공학과, 영어학과, 일본어학과,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 시설경영전공, 사회복지서비스전공, 사회복지상담전공), 보건행정학과, 법학과, 경영학부(경영정보학과, 글로벌경영학과, 마케팅학과, 서비스·생산·물류학과, 인사조직·전략벤처학과, 재무·회계·세무학과), 경제금융학과, 광고미디어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관광호텔경영학과, 호텔조리외식경영학과), 실버산업학과

문의 전화 02)2290-0082 · 입학지원센터 go.hycu.ac.kr

“경영 핵심은 사람, 뇌 메커니즘까지 연구했다”

건설분야 SW 세계 1위
마이더스아이티 이형우 대표

사람을 키우면 기업 성장이 따라와 신뢰의 수준이 성과의 수준 나타내 리더가 갖춰야할 ‘참용기’ 제시

“회사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람입니다.”

이형우 마이더스아이티 대표이사는 지난 11일 ‘상생포럼 혁신성장CEO과정 제1기’ 강의에서 “경영에 대해 알지도 못했던 제가 창업 7년 만에 회사를 세계 1위로 만든 것은 인간의 뇌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경영에 접목했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경영 철학을 공유했다.

마이더스아이티는 과학기술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과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특히 이 회사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소프트웨어 세계 1위로 알려져 있다. 8개의 법인을 두고 있으며 전 세계 110개국에 기술력을 수출하고 있다. 2016년 가장 입사하고 싶은 중소기업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형우 대표는 창업을 하면서 사람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2000년까지 직장에서 개발자로 일하다가 마흔의 나이에 독립해 마이더스아이티를 설립한 그는 사무실을 차린 후 가장 먼저 책방에 가서 경영에 관한 책을 열었다.

그는 “책에는 온통 돈 버는 방법과 어려운 용어들로 가득했는데 경영의 핵심은 돈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 때부터 사람과 뇌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하고, 돈



을 움켜쥐는 자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뜻의 ‘축록자불견산 확금자불견인(逐鹿者不見山 攬金者不見人)’이라는 명언에는 이 대표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

경영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고 믿는 그는 “사람을 키우다 보면 기업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며 “사람을 제대로 키우려면 먼저 사람의 본질적 속성을 이해하고 경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사람의 본질적 속성을 뇌의 메커니즘에서 찾았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신뢰, 열정, 전략, 실행으로 작동되며 이 메커니즘을 알면 경영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신뢰, 열정, 전략, 실행을 통해 성과가 만들어지고 성과가 모여 성공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이더스아이티의 리더는 지시, 감독을 하지 않고 직원의 성공 경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 대표는 “사람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건 성공 경험을 쌓



▲ 지난 11일 열린 ‘상생포럼 혁신성장CEO과정 제1기’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이 이형우 대표와 사진을 찍고 있다.
◀ 이형우 마이더스아이티 대표이사. /ESC 상생포럼

는 일이고, 그들이 가진 능력을 다 쓰도록 도와주는 게 경영”이라고 말한다.

그는 신뢰의 수준이 성과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구성원은 리더와 조직을 신뢰하는 만큼만 일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신뢰의 핵심 중 하나를 긍정으로 꼽은 그는 사장이 기본 좋으면 회사 전체가 밝은 분위기라며 “웃지 못하는 사람이 리더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리더의 긍정성은 회사 전체 미래의 긍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아침마다 웃는 연습을 한다는 그는 강연을 하는 중에도 미소를 띤 얼굴을 유지했다. 또 리더가 갖춰야 할 용기로 ‘참용기’를 제시했다. 이는 ‘참’고 ‘용’서하고 ‘기’다린다는 뜻이다.

이처럼 한결같이 사람에 집중해온 그는 지금도 1년 중 채용과 관련한 일에 가장 많은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마이더스아이티는 스펙, 징벌, 상대평가, 정년이 없는 4무(無) 정책을 지향한다. 스펙이 성

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채용 시에도 스펙을 보지 않는다. 3년 전에는 고졸 특별채용도 도입했다.

좋은 인재를 뽑는 과정에서 수많은 면접을 경험해봤지만 잠깐 보고 사람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생물학과 신경과학을 기반으로 한 통합역량검사시스템을 자체 개발했고 인공지능(AI)면접솔루션을 통해 사람을 뽑고 있다.

AI면접을 통해 AI가 면접자의 혈류량, 얼굴 근육 포인트 추적, 음성 상태 분석, 혈압 등을 체크하며 면접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이렇게 뽑은 직원에게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경영이 돈일까요. 영원히 산다면 돈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십년 살고 죽는데, 그렇게 깨진 인생에 돈을 담으면 얼마나 담고 명예를 쌓으면 얼마나 쌓겠습니까. 돈과 명예를 버리고 사람을 쫓으면 결국 돈과 명예도 따라옵니다.”

/구서운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서울시 사회복지관 25곳 긴급 보강비 투입

서울시는 사회복지관의 안전 강화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25곳에 총 3억2827만원의 긴급 보강비를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르신·장애인·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해 화재가 발생하면 사상 위험이 높은 장소다. 이에 시는 사회복지관 96곳을 대상으로 긴급 기능보강 사업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를 통해 25곳의 총 29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결정했다.

우선 시는 동대문구 장안사회복지관의 노후 방화문을 교체한다. 신길사회복지관에는 화재감지기, 영등포복지관에는 화재 발생 시 무선으로 열 수 있는 ‘비상문 무선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다.

전력 공급 시설도 보강한다.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대비해 수서사회복지관에 전기증설 공사를 실시한다. 풍납복지관 케이블과 수서명화사회복지관 차단기를 교체해 누선·합선에 의한 화재를 막는다. 아울러 시는 도시가스 시설공사, 외벽 보수 공사 등 복지관 외부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보강 사업도 진행한다.

배후우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긴급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연중 지속적인 긴급 기능보강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청년여성 100명 맞춤형교육으로 취업 돕는다

서울시, 직업교육부터 원스톱 지원

서울시는 청년여성(만 18~39세) 100명을 MICE 전문가, 스마트 콘텐츠 크리에이터, 회계 전문가, 공연기획자로 양성해 취업까지 연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청년여성에게 직업교육부터 기업 실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취업교육은 4개의 전문교육기관에서 6~9월 총 20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으로는 ▲송파 영 MICE 아카데미 과정(25명) ▲스마트 콘텐츠 크리에이터 과정(25명) ▲클라우드 기반 구글독스 활용·ERP 회계 전문가 양성 과정(35명) ▲공연기획자 양성 과정(20명)이 있다.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별 컨설

팅 프로그램을 제공해 실질적인 취업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3개월간의 기업실습을 진행해 교육수료자의 50% 이상이 지속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여성이다. 참여 희망자는 해당 교육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한부모가족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윤희찬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청년 여성이 강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종을 지원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한다”며 “직업훈련, 채용까지 책임지는 서울시 여성 인력개발기관 사업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선거가 준 선물... 가족 나들이 북적.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 일대가 휴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선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푸르른 6월, 도심 속 공원으로 음악여행 떠나요~!”

녹음이 푸르른 6월, 도심 속 공원으로 음악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서울시는 14~22일 영등포구 여의도공원과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에서 ‘공원음악소풍’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여의도공원에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14~15일, 21~22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정오의 음악소풍’이 열린다.

점심시간 1시간동안 전문 어쿠스틱 밴드와 아마추어 직장인 밴드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직장인 고민상담소’도 함께 운영된다.

이날 여의도공원 어린이놀이터와 잔디광장에서는 플라스틱컵에 제라늄 등의



여의도공원 ‘정오의 음악회’ 행사 모습. /서울시

꽃을 심어 가져갈 수 있는 ‘나만의 책상 화분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낮 12시부터 시작해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서울공원에서 16~17일 오후 6시 ‘해질녘 음악소풍’이 개최된다. 양서·강서 지역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현악 오케

스트라팀이 시민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대중 클래식을 연주한다. 행사에서는 판타마임극, 심신이완 체형 프로그램 등도 운영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로 문의하거나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6월 14일

음력 : 5월 1일

수도권 날씨

29~19°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5:10 | 해질 / 19:54

연천 17/27, 동두천 18/28, 가평 16/27, 파주 17/28, 서울 19/29, 양평 18/28, 인천 19/26, 수원 18/28, 용인 18/28, 평택 18/29, 백령도 16/2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와 관계개선 통한 개혁·개방’ 베트남 모델이 北에 적합

휴전선 없는 한반도

글 쓰는 순서

- ① 민간 교류 물고 어떻게
- ② 북한의 물길 혁명 인프라가 좌우한다
- ③ 북한 경제개방 어디로 향할까
- ④ 통일을 준비하는 이웃들

● 이재춘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

한반도 훈풍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이 주목받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5년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에 따르면, 같은해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1013달러(한국은 2만7195달러)에 불과하다. 앞서 개혁·개방에 나선 중국(7990달러)과 베트남(2088달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재춘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베트남 사례에서 본받을 점이 많다고 본다. 중국은 위상과 규모 차이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반면, 베트남은 역사와 주변 환경에서 닮은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지난 7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기점으로 서방 자본을 받아들인 베트남의 선례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번 북미 회담 결과에 따라 북한의 개혁·개방을 억제해온 요인이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버지와 달리 자본주의사회에서 공부한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 시장 경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체제안정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재춘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교수가 7일 몽촌토성역 인근 카페에서 메트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물러난 중국, 미국의 압박… 유학과 김정은 ‘3박자’

-기존 연구에서 북한의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억제해온 요인으로 ▲유일지도체제 붕괴 우려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 우려 ▲핵개발 정책 등을 들었다. 앞서 국민 의정부(김대중)는 흡수통일 배제를 천명했고, 현재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었다. 북한은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다. 12일 북미회담 결과에 따라 중요한 개혁·개방 억제 요인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

“잘 진행된다면, 제일 중요한 점이 핵문제다. 중국은 어쩌서 북한 핵 억제에 적극적이었나.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신형 대국관계’를 외쳐온 중국은 북한을 계속 감쌀 경우 위상이 떨어진다.

그런데 중국이 자국의 위상을 확인할 때마다 북한은 늘 골칫거리였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중국이 개최한 브릭스(BRICS) 정상회의 당일 6차 핵실험을 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송타오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2주만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시진핑 주석의 위신을 여지없이 추락시켰다. 시 주석도 북한을 그냥 둘 수 없었을 것이다. 석탄과 철광, 심

“대내외 환경 개혁·개방에 적기 김정은, 자본주의 흡수 수월

지어 이류까지 무역을 통제하지 않았다. 북한의 수문장 역할을 벗어난 모습이다. 스위스에서 공부한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 자본주의의 장점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후원은 약해지고, 미국의 압박은 강해졌다. 윤신의 폭이 좁아진 김 위원장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저자세로 나올 수 있다. “용통성과 신축성을 보일 듯하다. 개혁·개방에는 대외·내적 상황이 맞아야 한다. 우선 대내적으로 지도부가 교체되어야 한다. 중국도 마오쩌둥 사후 등소평에 의한 개혁·개방이 시작됐다. 베트남도 경제난을 겪던 1986년 레 주언 당 서기장 사후 권력 지형이 바뀌어 개혁·개방이 시작됐다. 대외적 요인은 중국과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 한국·대만·싱가포르 등 주변국의 급성장,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

의진영의 경제 원조 중단과 1998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계기로 한 서방의 봉쇄정책 등이 있다.

반면 북한은 세습이라 사실상의 권력 교체는 아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자본주의 흡수에 수월하지 않을까.

북한은 내적으로 자본주의 요소를 끌어들이었다. 김정일 시대인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자본주의 성격을 대거 받아들였다. 농민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2005년 중국과 함께 수입물자 교류시장인 ‘보통강 공동교류시장’을 개설했다. 하지만 2009년 최대 규모인 평성시장을 철거하는 등 7·1 조치를 중단했다. 체제 안정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이어가면서도 개혁·개방은 유지해왔다. 2013년 개혁론자인 박봉주를 총리에 임명하고, 경제개발특구를 꾸준히 만들어왔다. 2014년 5·30 조치 등으로 기업의 자율성도 부여했다. 배급제는 이미 붕괴돼, 생필품의 80% 이상이 500여개 장마당에서 조달된다. 이미 공산주의체제라고 볼 수 없다.”

개혁·개방 통로는 미국… “베트남 선례 보라”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실패의 주된 원인은 외자도입에 필요한 우호적인 대외관계 구축이 안 돼서다. 북한은 이번 북미회담 결과에 따라 중국 의존성을 낮추고 윤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가능할 것이다. 앞서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공표했다. 합영법은 서방국가들과의 단순 교역을 통한 자본, 플랜트 도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로 기술·경영기법 도입이 가능하도록 개방 폭을 넓힌 조치였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와 좁은 내수 시장 등 열악한 투자환경, 낮은 신용도 때문에 외국 자본가들이 진출을 기피했다. 그런 와중에 1993년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면서 서양은 물론 일본 자본이 들어가지 않게 됐다.

베트남이 1986년 시작한 개혁·개방 이후 부작용을 겪다 성공한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덕분이다. 베트남은 1989년 10년만에 캄보디아에서 철수하고 1991년 평화협정을 맺었다. 비로소 미국이 1992년 통제를 풀기 시작했다. 미국은 두 가지 통제 방법이 있다. 우선 전시법에 의해 적성국가 투자를 금지한다. 국제은행과 IMF도 미국이 주도한다. 아무리 개혁·개방해도 미국 없이는 성공을 못한다. 반면 중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화교가 돕는다. 북한과 중국을 직접 비교할 수 없다.”

-북한 경제특구는 2002년 발표된 신의주특별행정구를 빼놓을 수 없다. 당시 외교와 방위는 북한이 담당하지만, 홍콩처럼 독자적인 입법·사법·행정권을 갖게 했다. 그런데 중국이 신의주특별행정관 양민을 구속하면서 사업이 좌절됐다. 이를 두고 중국이 북한과 서방의 관계개선, 북일 수교 재협상, 단동경제특구와의 인접성 등을 경계했다는 분석을 내놨는데, 지금 상황도 비슷해 보인다.

“신의주를 살리려면 중국도 끌어들이야 한다. 중국은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한다. 북한과 미국이 대립할 때는 북한의 동북4성 편입 구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북·미 관계가 개선돼 서방 자본이 북한에 들어갈 경우, 잘못하면 중국이 북한을 잃을 수 있다. 중국도 양보해서 북한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북한이 중국 경제에 편입되는 특구를 만드는 쪽이 중국의 희망이었다면, 이제는 그 꿈을 접고 한국과 동등하게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 내 친중국 기업 확장과 특구 발전이 중국에 유리하므로, 경쟁적으로 자본을 투입할 것이다.”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건국 이전 식민지배 경험 등 북한과 공통점이 많다. 베트남은 1986년 12월 6차 당대회에서 기업 자율성 증대가 포함된 도이머이(쇄신) 정책을 채택했다. 당시 사회주


의 추진 기간이 30년 정도로 짧아서, 기득권이 침해받을 세력이 적고, 이 기간의 오류에 대한 책임 역시 무겁지 않았다. 실용주의 전통에 기반한 집단지도체제이기도 하다.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심 지배세력의 기득권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개혁개방정책을 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김 위원장은 후계자 수업을 제대로 못받았다. 세습으로 지도자가 됐는데, 그것만으로는 명분이 약하다. 경제강국밖에 없다. 지금까지 해온 핵 개발을 활용해서 경제개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과의 회담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에게는 체제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 확신이 있으면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 경제 발전을 해야 한다. 일단 체제 안정은 유리하다. 지금 한국 정권은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맥을 같이 한다. 북한과 대립하지 않는다. 그러니 한국이 자신들을 흡수통일 하지 않는다고 예상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중국과 핏줄이라고들 생각하지만,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으려 경계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1992년 한중수교로 중국에 배신감을 느꼈다. 한국을 적화통일 하기도 어렵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의 영향권에 빨려들어갈 수 있으니, 미국의 힘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재춘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공사를 역임했다. 호서대 초빙교수를 거쳐, 고려대 겸임교수를 지냈다.

김정은 시대 개혁·개방은 ‘총살 없는 소신 정책’ 향해야

-북한과 베트남의 차이점 중 하나가 중국과의 관계다. 베트남은 1979년 국경전쟁 이후 중국과 관계가 단절됐다. 베트남과 달리 선택의 여지가 있는 셈인데,

“북한이 중국 경제에 편입되면, 경제적 측면서 동북 4성으로 전략한다. 상황은 달라도, 결과적으로 중국 자본만으로는 개혁·개방 하기 어렵다.”

-그만큼 북에게 이번 회담은 사활이 걸렸다.

“북한은 선택의 폭이 좁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만기에는 예전처럼 싹뚱 나서주지도 않고, 세계적 지도자라는 위상을 위해 미국과 맞서려 하지도 않는다. 김 위원장이 남북회담 이후 조금 다른 자세를 보이니,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간 뒤에 태도가 변했다’고 해 중국도 입장이 난처해졌다. 트럼프는 예상 가능한 상대가 아니다. 주먹이 앞서는 외교를 하기 때문에, 적성국이다든 우방국이다든 맞서기를 꺼린다.”

-현재 정세에서 북한이 베트남에서 특히 배워야 할 점은,

“개혁개방의 가장 큰 걸림돌이 유일지도체제다. 체제 붕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했다. 김 위원장도 자기 하기 나름이다. 노동당 지도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에 성공할 수 있다. 미국을 통한 서양자본 유치는 기본이다.

무엇보다 책임자가 실패해도 2선으로 후퇴시키되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베트남은 급진 토지개혁이었던 쩌영찐 당 서기장을 2선으로 물리고 처벌하지는 않았다. 레 주언 서기장 사망 이후에는 몇 달 간 임시 당 서기로 일하기도 했다.

반면 북한은 2010년 화폐개혁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총살했다. 1997년에는 서관희 노동당 농업담당 비서도 농업정책 실패로 총살당했다. 정책 실패에 책임을 물어 총살하면, 누구도 소신 있게 개혁하지 못한다.”

“체제 유지하며 성공할 수도 책임자 소신 추진 득려해야



[라이프]
이색 재료에 다양한 토폵
'빙수전쟁' 막 올랐다
너

[메트로]
휴전선 없는 한반도
北 경제개방 어디로?
L7



나이지리아 출신 '사무엘' 씨... 114세 '이용금' 할머니...

남녀노소 국적불문, 모두가 즐긴 '민주주의 축제'

이번 6·13 지방선거는 남녀노소와 국적을 초월한 '민주주의 축제'로 기록됐다. 이날 충북 옥천에선 114세 최고령 유권자 이용금 씨가 투표권을 행사했다. 일제강점기와 군부독재,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거친 그가 투표함 앞에 선 모습이 공민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또한 이번 선거는 반 세기만에 경제대국이 된 한국의 세계화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서울 이태원에서는 나이지리아 출신 공장 노동자 우구오마 오빈나 사무엘(52) 씨가 영주권에 따라 이번 축제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와 북미 정상회담, 각종 스캔들이 뒤얽힌 선거에서 유권자가 선택을 내리는 모습을 한데 모아봤다. (편집자주)



- ❶ 13일 오전 강원 춘천시 봄내초등학교에 마련된 석사동 제6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줄지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 ❷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주민센터에 마련된 명동 제1투표소에서 수녀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 ❸ 13일 충북 옥천군 청산면 제2투표소에서 올해 114세 된 이용금 할머니가 투표를 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1904년 10월 6일생이다.
- ❹ 13일 강원 양양군 서면복지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인근복지시설의 장애인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 ❺ 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초등학교 교육문화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나이지리아 출신의 공장 노동자 우구오마 오빈나 사무엘(52) 씨가 투표를 하고 있다.
- ❻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초등학교 교육문화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엄마 대신 아이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 ❼ 13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초등학교에 마련된 대정읍 제1투표소에서 주민들이 줄을 서서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